



# 啓聖同窓會報

제 54호

2010년  
10월 30일(토)

교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인·이병구/편집인·김정길/주간·정만진/편집·홍익선, 한학동, 홍헌득/인쇄인·홍임호/발행처·계성학교 총동창회/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053)255-3900 FAX(053)256-4942/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인쇄처·민기획/대구시 중구 남산2동 244-17 ☎(053)256-8534, FAX(053)255-7831



개교 104주년 총동창체육대회

## CB-53회, OB-63회, YB-76회 각각 종합우승

2010년 10월 9일(토) 계성학교 남편 운동장에는 가장자리마다 천막이 쳐져 있었고, 각종 행사 물품을 실은 차량들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는 졸업생들이 줄지어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전날부터 비가 온 관계로 운동장 사정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염려 덕분에 입장식이 가까워지자 날은 개고 운동장은 오히려 운동하기 좋은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천막에는 각 기수를 상징하는 현수막이나 기수기가 걸리고 동문들이 모여면서 운동장은 서서히 잔치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각 기수별로 입장식을 준비하라는 본부석의 방송이 있자 예년처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회를 치르는 YB팀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가족단위로 남편 운동장으로 건너왔고, 입장식도 점수를 부여하는 경기방식에 편승하여 각종 응원 도구를 동원하거나 분장을 한 기수들이 입장을 위해 동쪽 운동장 끝으로 대열을 형성했다.

<2면에 계속>



## 동보한방병원 · 동보정형외과의원

원장 / 한의학박사 장 세 환 (47회, 총동창회 고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동 503-1(신천지하철역 옆)

한방병원. 053)425-4085 정형외과. 053)425-0500 <http://www.dongbohanbang.co.kr>



# 10월 9일, 개교 104주년 총동창가족체육대회 성대히 열려

## 동문·가족 등 2천여 명 참가 즐거운 한때 보내



<1면에 이어>

피켓을 든 도우미 재학생들의 안내를 받아 선배 기수부터 입장을 시작했다. 53회는 무려 30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가하여 노익장을 과시 했고, 63회는 50여 명의 동문들이 색색의 풍선을 손에 쥐고 입장하여 분위기를 통과할 때 OB팀 종합우승을 염원하는 풍선 날리기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막내 기수인 79회는 본부석에 인사를 마친 다음 돌아서서 입장식에 참가한 선배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는 재지도 보여 주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본부석 단상이 더 화려하게 차려져 대회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의 입장이 끝나자 최태조(48회) 목사님의 시작 기도회에 이어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의 대회사, 김재현(59회) 계성고등학교 교장, 박성대(38회) 계성장학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계성학원 김태동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고 본부석에 자리한 원로 선배, 전임 회장, 정계 인사들이 차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이형두(30회), 박성대(38회, 장학재단 이사장), 김태동(재단이사장), 김봉운(40회, 전 재경동창회장), 김용태(41회, 전 내무부장관), 성한기(47회), 최태조(48회), 박창달(51회,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윤동환(52회, 재경동창회장), 김신길(54회, 총동창회 부회장), 이재운(56회, 총동창회 부회장), 이인기(59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현(59회, 고교장), 손용식(60회, 종교장), 홍창호(68회, 대구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한편, 총동창회장의 개회 선언 때에는 축하 팡파레와 함께 축하 불꽃놀이가 벌어져 가을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체육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 C.B팀

#### ▷종합성적

우승-53회, 준우승-54회, 3위-58회, 감투상-59회

#### ▷종목별성적

줄다리기 : 1위-53회, 2위-59회, 3위-58회, 돛지불 : 1위-54회, 2위-56회, 3위-53회, 59회, 혼성2인3각계주 : 1위-53회, 2위-54회, 3위-59회, 크로케골프 : 1위-53회, 2위-54회, 3위-56회, 입장식 : 1위-53회, 2위-58회, 3위-59회, 등반 : 1위-55회, 2

위-52회, 3위-54회, 테니스 : 1위-53회, 2위-54회, 바둑 : 1위-58회, 2위-56회, 3위-54회, 59회, 마라톤 : 1위-58회, 2위-51회, 3위-53회, 57회, 골프대회 : 1위-58회, 2위-53회, 3위-59회

### O.B팀

#### ▷종합성적

우승-63회, 준우승-65회, 3위-60회, 모범상-64회

#### ▷종목별성적

줄다리기 : 1위-65회, 2위-63회, 3위-60회, 66회, 돛지불 : 1위-63회, 2위-69회, 3위-64회, 65회, 혼성2인3각계주 : 1위-60회, 2위-69회, 3위-63회, 발배구 : 1위-64회, 2위-65회, 3위-60회, 69회, 입장식 : 1위-63회, 2위-64회, 3위-65회, 등반 : 1위-65회, 2위-60회, 3위-63회, 테니스 : 1위-65회, 2위-69회, 3위-63회, 바둑 : 1위-64회, 2위-65회, 3위-60회, 63회, 마라톤 : 1위-60회, 2위-63회, 3위-61회, 68회, 골프대회 : 1위-65회, 2위-61회, 3위-60회

### Y.B팀

#### ▷종합성적

우승-76회, 준우승-71회, 3위-77회, 장려상-78회

#### ▷종목별성적

줄다리기 : 1위-76회, 2위-73회, 3위-70회, 75회, 돛지불 : 1위-76회, 2위-70회, 3위-78회, 79회, 400m계주 : 1위-76회, 2위-71회, 3위-74회, 배구 : 1위-78회, 2위-77회, 3위-73회, 76회, 입장식 : 1위-76회, 2위-73회, 3위-79회, 등반 : 1위-71회, 2위-70회, 3위-76회, 테니스 : 1위-70회, 2위-71회, 3위-75회, 바둑 : 1위-71회, 2위-78회, 마라톤 : 1위-77회, 2위-74회, 3위-72회, 축구 : 1위-76회, 2위-78회, 3위-71회, 75회, 골프대회 : 1위-74회, 2위-71회, 3위-75회

글. 한학동(64회)





## 총동창회 소식

제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 및  
고교동창 골프대회 선수 선발전

제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 행사가 2010년 9월 6일 대구CC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당일 태풍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시원한 날씨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굿은 날씨 속에서도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 박성대(38회) 장학재단 이사장, 김봉운(40회) 전 재경동창회장, 박성진(42회) 영신고등학교장, 조준제(47회) 전 재경동창회장, 박하규(51회) 전 재경동창회장, 채용호(57회) 재경계우회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을 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제2회 대회에는 총 104명 26개 팀이 동코스, 중코스, 서코스별로 각각 8팀, 9팀, 9팀씩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18홀 코스가 아닌 27홀 코스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가지 실수와 경기진행 미숙으로 선, 후배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차기 대회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대회라 생각된다.

본 대회행사는 기별골프대회와 더불어 저희 계성학교를 대외적으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SBS고교동창 골프대회에 참여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실력 있는 선.후배들이 참석하여 저희 모교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은 65회(이근



식, 정규화, 홍정욱), 준우승 61회(마성일, 박철환, 예병국), 3위 60회(이영출, 조재태, 안순길)이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은 이영출(61회), 2위 이근식(65회), 3위 조재태(60회)가 차지했다. 이번 개인전 시상자들은 2011년 SBS고교동창 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

문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대회 협찬은 이상홍(76회) 벤츠 골프백 2세트, 서정덕(77회) 넥서스 골프백 2세트 협찬하였다.

다시 한번 대회에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글. 노현석(69회, 성북회 총무)

## 6월 5일, 제26회 재경 계성 가족 친선 체육대회 성황리에 열려



재경 계성 가족 친선 체육대회가 지난 6월 5일 국회의사당 잔디구장에서 1,500여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우려와는 달리 맑은 날씨에 하나 둘 각 기별 텐트로 동문들이 모였으며, 오전 9시에 예정이었던 입장식은 약간 늦어진 9시 20분경에 50회 선배들을 필두로 30여 분 가까이 일찍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52회 선배들이 입장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다.

모든 동문들의 축제의 마당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 동문들이 오늘 하루를 즐기고 다시 일상에서의 활력이 되기를 기원하는 운동한 재경동창회장님의 대회사와 계성학교 김태동 재단이사장님 및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님의 축사에 이어서 직전 재경동창회장이신 이시원 회장님의 개회선언은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맑은 하늘로 축포와 함께 울려 퍼졌다.

기별 대항 배구는 양쪽 코트에서 질서있게 진행되었

으며, 이번 해에는 새로이 50회에서 55회 동문들이 참석하는 시니어 Game으로 국궁을 준비하였다.

많은 동문들이 양궁과는 다른 활과 경기 방식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 경기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62회 장수의 동문께 감사를 전한다.

본부석 원로 선배님들을 위하여 새로이 마련한 Golf Approach Game에는 원로 선배님들과 함께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여주었고 특히 동문 아주머니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여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하겠다.

많은 동문들이 협찬하여 주신 행운권 상품이 많은 관계로 경기 진행 도중 추첨으로 나누어 줄 때 곳곳에서 환호와 아쉬움이 오가며 축제의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경기 결과 O.B는 62회(2위 60회, 3위 63회)가 Y.B는 69회(2위 75회, 3위 70회)가 종합 우승으로 부상과 함께 즐거움을 수상하였다.

이어서 행운권 추첨에서 여러 주요 상품들이 많은 동문들에게 나누어졌으며, 대상적인 드림세탁기는 75회 최재호 동문이 큰 행운으로 받게 되었다.

각 기별 뒤풀이 시간을 위하여 조금 일찍 끝낸 운동장에는 곳곳이 아쉬움을 달래려 남아있는 동문들도 보였으나, 말끔한 뒷정리는 역시 지성인 계성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아 참 좋았다.

진행에 있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포용하여 주신 모든 재경 계성 가족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 좀 더 알차게 준비하겠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동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이응재(64회, 재경동창회 사무국장)





#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

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학기금 납부자

(2010. 4. 28 ~ 2010. 10. 20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성명	기수	납입금액	성명	기수	납입금액
유승왕	59	3,000,000	남장호	42	100,000
박현식	57	1,000,000	이덕옥	46	100,000
남동우	77	1,000,000	마준호	47	100,000
김재환	41	585,770(500 \$)	박 실	48	100,000
김재국	53	585,770(500 \$)	최백영	53	100,000
정인국	55	585,770(500 \$)	성현욱	54	100,000
유완석	59	500,000	위재곤	54	100,000
이무호	42	400,000	차한공	56	100,000
박창현	62	351,462(300 \$)	장도수	57	100,000
이종환	71	234,308(200 \$)	이창재	61	100,000
장성훈	23	200,000	이영우	61	100,000
허종중	40	200,000	오근수	65	100,000
우세홍	46	200,000	진임근	65	100,000
김창동	43	117,154(100 \$)	김태선	41	90,000
강창근	45	117,154(100 \$)	김선희	43	90,000
서삼덕	47	117,154(100 \$)	김이규	56	58,577(50 \$)
김지홍	49	117,154(100 \$)	박무희	68	58,577(50 \$)
안영근	49	117,154(100 \$)	장기일	26	50,000
김영식	52	117,154(100 \$)	김근조	47	50,000
김광호	56	117,154(100 \$)	강성득	53	50,000
서희수	56	117,154(100 \$)	곽 태	50	40,000
정재덕	58	117,154(100 \$)	김정한	63	40,000
김왕기	59	117,154(100 \$)	권혁도	62	20,000
박노태	68	117,154(100 \$)	우흥기	48	10,000
장재동	74	117,154(100 \$)	윤규열	71	10,000
총 합 계	12,097,462				

## 회보구독료 납부자

(2010. 4. 28 ~ 2010. 10. 20까지 입금 내역임)

### ▷ 100,000원

신재만(41회), 이상구(52회), 변재진(62회), 무명

### ▷ 50,000원

이갑진(42회), 김석조(48회), 남인식(50회), 김주현(50회), 윤응균(51회), 정의대(56회) 박권식(63회), 이호성(64회), 남재율(77회)

### ▷ 30,000원

박용희(42회), 윤희직(44회), 전규용(47회), 임병용(49회), 이호철(51회), 최구영(51회) 최백영(53회), 이도영(54회), 도영호(54회), 이영국(59회), 이진환(64회)

### ▷ 20,000원

서정원(39회), 김울경(39회), 박중렬(40회), 김금식(41회), 백영수(42회), 이만환(42회) 이승남(44회), 김재석(44회), 조석재(45회), 허영태(47회), 김상준(48회), 이동각(51회) 이현종(52회), 정병대(52회), 이상수(55회), 장수진(56회), 이춘수(59회), 윤경덕(60회) 석호천(60회), 김영웅(61회), 이현복(61회), 김도성(61회), 변창대(62회), 황규재(63회) 이원호(66회), 박준모(75회), 무명3

### ▷ 10,000원

장성훈(23회), 강석교(27회), 김경창(36회), 강병락(39회), 허동원(39회), 송판수(39회) 이기수(40회), 허종중(40회), 김태선(41회), 김세만(42회), 김선희(43회), 이장완(44회) 박순용(44회), 박승욱(45회), 전재수(45회), 임대현(46회), 하춘조(47회), 마준호(47회) 김순일(48회), 김정국(48회), 우흥기(48회), 신태용(49회), 임경종(49회), 곽 태(50회) 이재광(50회), 김유택(50회), 김덕곤(50회), 최명수(51회), 한복현(51회), 이수환(52회) 조종열(53회), 김 찬(53회), 조규홍(53회), 하태철(53회), 강성득(53회), 최정태(54회) 성현욱(54회), 김철민(54회), 이상한(54회), 노인균(55회), 김항윤(55회), 백상호(56회) 남영석(56회), 최홍식(59회), 김두현(59회), 박철래(60회), 이승엽(60회), 김효종(60회) 최종삼(61회), 김진하(61회), 최봉환(61회), 이의춘(62회), 김 훈(63회), 김정한(63회) 정한관(63회), 배상식(63회), 정성재(63회), 신종근(64회), 천강현(65회), 김병윤(65회) 제갈영순(66회), 심상련(67회), 장영형(68회), 이상철(68회), 고종수(71회), 진종덕(71회) 오재현(73회), 이진원(77회)

계121건 2,440,000원 (누계:47,541,000)

회보 구독료를 보내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발전하는 동창회보가 될 수 있게 동문들의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 장학기금 및 회보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10. 10. 20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기 별	장 학 금			회 보 구 독 료	
	기별부담금	개 인	인원	금 액	인원
23		800,000	7	100,000	8
26		5,050,000	2	100,000	2
27		5,000,000	1	30,000	3
28				10,000	1
29	300,000	1,000,000	1	40,240	4
30	300,000	200,000	2		
31	1,000,000	300,000	3	70,000	5
32	300,000	300,000	1	40,000	2
33	1,500,000	300,000	2	10,000	1
34		1,000,000	1	100,000	1
35	200,000	150,100,000	2	300,000	9
36	300,000	100,000	1	260,000	24
37		15,100,000	2	790,000	12
38	1,600,000	36,600,000	9	180,000	11
39	1,000,000	900,000	4	1,460,000	85
40		8,600,000	16	810,000	39
41	5,000,000	19,890,770	9	620,000	27
42	5,000,000	18,240,000	24	1,500,000	64
43	5,000,000	6,057,154	24	600,000	17
44	5,000,000	28,230,000	29	1,600,000	70
45	7,000,000	49,047,154	17	1,180,000	59
46	7,000,000	9,400,000	20	960,000	50
47	7,000,000	42,437,154	16	1,240,000	52
48	7,000,000	2,110,000	12	1,050,000	37
49	7,000,000	12,784,308	20	1,290,000	55
50	10,000,000	51,840,000	10	2,580,000	81
51	10,000,000	22,200,000	10	1,800,000	118
52	10,000,000	145,707,154	34	2,450,000	90
53	10,000,000	116,885,770	29	1,890,000	103
54	10,000,000	3,750,000	16	2,240,000	118
55	10,000,000	8,295,770	17	1,730,000	101
56	10,000,000	69,922,885	27	2,180,000	98
57	10,500,000	1,930,000	8	1,990,000	69
58	10,000,000	14,377,154	19	1,650,000	61
59	10,000,000	6,567,154	13	1,340,000	57
60	10,000,000	10,320,000	22	2,250,000	119
61	10,000,000	6,610,000	9	1,190,000	59
62	10,000,000	1,076,040	8	920,000	36
63	10,000,000	5,433,424	14	1,230,000	82
64	10,000,000	13,180,000	22	1,450,000	76
65	10,000,000	510,000	6	750,000	44
66		1,100,000	7	730,000	40
67		120,000	2	360,000	20
68	10,000,000	815,731	7	770,000	51
69	10,000,000	1,700,000	9	640,000	33
70	7,000,000	300,000	4	270,000	9
71	7,000,000	1,864,308	12	670,000	39
72		240,000	1	160,000	10
73		130,000	2	220,000	13
74	7,000,000	317,154	4	80,000	5
75				80,000	4
76				20,000	2
77		1,100,000	2	110,000	7
78		50,000	1	20,000	2
79				10,000	1
80				30,000	3
82				20,000	2
원주지부		400,000	13		
고령지부		300,000			
재천지부		400,000			
포항지부		3,000,000			
영천지부		1,000,000			
시카고지부		2,100,000			
구미지부		500,000			
영덕지부		500,000			
경주지부		1,000,000			
울진지부		200,000		30,000	
무 명		140,000	3	981,000	61
계	263,000,000	908,890,464	560	47,541,000	2,255



##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받아

6월 7일 충북대학교 본부 3층 대강연실에서

(주)네패스 이병구 회장은 6월 7일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충북대학교는 학위수여식을 6월 7일 오후 5시 이 대학 본부3층 대강연실에서 (주)네패스 이병구 회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승택 총장 등 보직자들과 네패스측 관계자, 초청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병구 회장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네패스 그룹의 회장으로서 기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충북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는 지금까지 이병구 회장의 행

보와 업적을 높이 사고 앞으로 충북 지역과 충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돼 이병구 회장을 이 대학의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북 경제에 대한 기여 측면을 보면 충북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네패스는 ▲ 충북 고용대상 기업선정(2007) ▲ 은탑산업훈장 대통령상(2006) ▲ 윤리경영대상 투명경영부문대상(2006) ▲ 한국인사조직학회 창업기업인상(2008) ▲ 인적자원 개발 우수 기관 선정(2009)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아 왔다.



▲ (주)네패스 이병구 회장이 6월 7일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장면

## 함인석 동문(55회), 경북대학교 제17대 총장에 취임

후보 6명 중 1차 투표 48%, 2차 투표 62% 압도적 지지 얻어



함인석(咸印碩) 동문(55회)이 지난 6월 18일 실시된 제17대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1차투표 48%(후보 6명), 2차투표 62%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 9월 7일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관현악 연주의 식전 행사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 소개, 총장 약력 소개 등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내빈으로는 김익동, 박찬석, 김달웅,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을 비롯한 역대 총장, 최덕수 경북대 총동창회장, 마틴 우텐 주한 영국대사, 주호영 국회의원,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 이호수 영남대학교 총장, 신임 보직교수와 학생, 교직원 학교 관계자, 김법일 대구시장,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채한철 대구지방경찰청장 등 지역 기관장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곧이어 신임 총장의 취임사가 펼쳐졌다. 취임사에서 함인석 총장은 “최근 주변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경북대의 위상과 명예가 과거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매우 안타까워하며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21세기를 맞이한 대학문화가 지식정보와 글로벌시대로 더욱 빠른 속도로 바뀌며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구성원들의 명예심과 자부심을 드높이고 겨레와 나라의 번영,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해 경북대가 최신 지식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의 근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경북대가 다양성

과 역동 그리고 창의성을 고루 갖춘 대학이 되고, 여유를 갖고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의 소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대학, 교수와 학생 교직원 모두가 친가족처럼 흥금을 더놓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대학이 되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함 신임총장은 “최첨단 교육시설과 연구 환경이 갖춰져 밤낮없이 역량을 키워가는 대학,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열어가는 지식선도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면서, 4년간 총장으로서 △대학 발전기금 2000억 원 확보 △2020년 연구부문 세계 100대 대학 진입 △2020년 학생 교육 만족도 전국 1위 대학 △2020년 교수, 교직원 직장 만족도 전국 1위 달성 △100만평 규모 제2캠퍼스 신축 준비 작업 완료 △연구와 교육에 예산 집중 투자 △조직 경영 합리화 계획 추진 등의 희망과 패기에 찬 목표로 제시했다.

함 총장은 1968년 2월 모교를 졸업하고, 1976년 2월 경북대학교 의학과 학사, 1982년 2월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육군 대위

전역 이후 1989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3월부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로 대학 강단에 선 이래, 1987년 4월 조교수, 1991년 부교수, 1996년 정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임해 왔다.

2000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주임, 2000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신경외과 학전공 주임을 역임하였고, 그 이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수사과학대학원 원장,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두루 역임하였다.

한편, 1987년 9월부터 1988년 3월까지 일본 동경대학교 의학부 객원 조교수, 1991년 1월부터 1992년 2월까지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객원 부교수, 1997년 5월부터 1997년 7월까지 같은 대학교 객원 교수를 맡았으며, 199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함 동문은 또, 1999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대구·경북 신경외과학회 회장, 2002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한 뇌혈관외과학회 감사, 2002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홍보, 교육, 고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세계 신경외과 학회 및 아시아 대양주 대의원,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대한 의사회 대외협력 특별이사, 2004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포항 의료원 이사,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한국보건대학원 원장협의회 회장,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대구·경북 의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대한 뇌신경과학회 이사,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서한 장학회 감사,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세계 신경외과학회 유치단 재무위원장,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이사를 맡는 등 정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도 펼쳐 왔다.

가족으로는 아내 김애라씨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

글.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인터뷰

## 한기환(59회)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병원장 계성을 계성답게 성장, 발전시킵시다.



한기환(59회) 동문은 서울에서 직물 공장을 하시던 부모님이 6·25동란 때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시다가 물 좋은 충청남도 예산에서 공장하시기가 좋다고 머물게 되었고, 1954년에 태어났다.

아주 어릴 때에는 거기에서 자랐고, 당시에 직물은 대구가 더 유명했으므로 서울 대신 대구로 이주하게 되었다. 서문교회 유치원을 거쳐(당시 보모선생님은 계성학교 변정수 교감선생님의 여동생이었음) 종로초등학교를 나와서 1966년 계성중학교에 입학, 1969년에 계성고등학교에 동일계 진학하였다.

1978년에 경북의대를 졸업한 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인턴, 성형외과 전공의 수련을 마쳤고, 육군군요관으로 철원에서 의무중대장과 대구통합병원을 거쳐 1986년부터 동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1990년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의과대학 소아병원에 객원교수로 근무하였으며, 1994년부터 10년 동안 성형외과 주임교수와 과장을 맡았다.

2006년에는 대만에 있는 장궁병원 성형외과에 객원교수로 있었다.

**한 동문에게 묻는다. “경주동산병원에 종사하게 된 계기와 보람은 무엇입니까?”**

“2009년 5월 어느 날, 꿈에서 깨어나서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을 도와야 하겠다고 자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근무 하던 가운데, 전임 병원장의 중도하차로 10월에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주 동산병원은 11개의 임상과, 110병상의 종합병원입니다.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장례식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의 12명, 레지던트 5명, 인턴 2명 그리고 간호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수는 124명입니다.”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컴버랜드 장로교회와 레이몬드 프로보스트(부레문) 목사 부부의 선교비와 대구동산기독병원(마렛 병원장)의 설득과 의료지원 그리고 한국교회들의 노동력으로써 1962년 설립된 ‘경주기독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부레문 목사는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때 한국 땅에 남아 있으면서 ‘경주문화고등학교’를 설립한 다음, 10만 인구의 경주에 의료시설이 없었으므로 시급한 진료소 건립을 해결한 것입니다.

1991년 3월,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으로 거듭나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주동산병원의 설립취지는 치료를 베푸시는 자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부임해 보니,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경주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맨 먼저, 경동노화와 경주지역의 교회에 새로운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원목을 모았습니다. 낙후되었던 병원의 내부와 외부를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건강검진센터를 새로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최신식 장례식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결과, 현재에는 경주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반응을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충은 경주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

이 선택입니다.) 여름방학 후 시험을 잘 보았다고 특설반에 진입할 수 있겠다고 격려해주셨던 수학의 김진태 선생님, 친히 두 개의 큰 나무 삼각자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기하를 가르치신 정충영 선생님, 자신을 ‘샘’이라고 자칭하시던 김해봉 선생님, 자신의 학교시절 모습을 찰흙으로 빚은 두상을 본 것을 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함으로써 조소를 하게 만드신 수학의 허종중 선생님, 국어고문의 기초를 다져주신 실력과 할아버지 광대남 선생님, 깨진 사발그릇으로 돼지 불까기를 한다는 놀라운 지식을 가르쳐 주신 농업의 김환태 선생님, 선도반을 잘 이끌도록 지도해 주셨던 고 신현희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동일계 진학으로 입학한 계성고등학교 시절, 키가 크다고 행사 때마다 태극기나 교기를 들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드릴 때 인사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지를 살피시느라 눈동자를 굴리시던 수학의 김태동 선생님, ‘흑판의 명필 신사’ 이신 국어 윤근필 선생님, 팔짱을 낀 채 아래턱을 깨고 고민하시는 국어 손준식 선생님,

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나면 조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2007년에는 제가 수술했던 머리와 얼굴의 기형 환자들의 모습을 청동 두상으로 만들어서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현재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소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06년 개교한 우리 모교는 어언 104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빛나는 전통이다. 그래서 한 동문에게 묻는다. “모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진일보시키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설반의 신설인데, 당시에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존재인 지방의 수재들에게 장학금을 쥐가면서 모시고(?) 와서 잘 키우느라고 격려까지 시켰으며, 잘 가르치기 위해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영입하였고,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회이며, 혜택을 입었던 졸업생

## 우수 의료진 확보, 노후 의료장비 대폭교체 경주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반응 얻어

원으로서의 중대한 임무를 다 하고자 열심과 정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25만 인구의 소비도시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경주동산병원은 고도 천 년의 도시에 걸맞게 의료관광사업을 일으키고, 모병원인 대구동산의료원이라는 거대한 의료집단으로부터 탁월한 교수진을 공급받고, 대구동산병원으로 위급 환자의 후송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연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창회보 기자가 묻는다. “모교에 대한 추억과 잊지 못할 모교 은사님은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중학교 시절, 학교와 동산병원과의 사이의 길이 포장 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질퍽질퍽한 길, 그것도 염소들이 묶여 있던 좁고 복잡한 길을 지나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양쪽 가로수가 있는 길을 지나면 화강암으로 된 웅장한 50계단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위에는 아이비로 덮인 고성과 같은 학교건물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쳐다보면 뿌듯했습니다.

개교 50주년행사를 준비했던 추억, 임성길 선생님으로부터 첫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를 배웠던 일, 유도부에 들어오라고 유도시간마다 집어던지고 누르기를 하였던 김인덕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운동부족이라고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같은 훈련을 시키셨던 금동진 선생님(50계단을 물구나무서기로 날아다니시던 모습

소풍 가는 날 친구들과 다른 곳으로 놀러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퇴를 허락해 주셨던 오동 남계 김학섭 선생님, 소풍 가서 이상한 액체와 기체를 삼가 하라고 가르치시던 영어의 황재호 선생님,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역설하셨던 영어의 김종선 선생님, 학원 스타일의 영어의 달인 양해수 선생님, 종종 콧소리를 내시던 순진하셨던 영어 전병래 선생님, 독일어 발음이 무뎡뎡하지 않고 부드럽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해주신 이화남 선생님, 자신의 친구인 ‘한기환’은 공부를 참 잘 했는데 너는 이름만 비슷하지 왜 그렇게 농탕이를 치느냐고 꾸중하시던 화학의 이재찬 선생님, 의과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하면 홍익미술대학에 책임지고 넣어 주시겠다던 장진필 선생님, 새로 생긴 교련시간에 병에 오줌을 누면 성병에 걸린다고 친절하게 엉터리 성교육을 시키시던 교련 김태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가족 관계와 여가선용 등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동창회보 인터뷰 전통이다.**

“저는 김신향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며, 큰딸은 삼성의료원 성형외과 전공의 일 년 차이로, 둘째 딸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남산교회를 시무장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운동을 즐겨 하지 않고, 좌업(坐業)을 좋아합니다. 고전음악을 자주 들지만 실은, 음악 감상보다는 음향기기를 더 좋

으로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앙지도인데, 당시 문교부가 지시하는 윤리 과목 시간에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행정지시에 반하는 무리한 배려하셨고, 좋은 믿음을 가지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신앙지도를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에는 신앙심이 없거나 약했다더라도 졸업하고 오래 지나서라도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59회 동기 중에 목사와 장로가 23명 정도 됩니다. 이처럼 계성학교에는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수 있으므로 예전에 성공했듯이 현재에도 계성을 계성답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의 전환이 좋은 증거일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명은 무엇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십니까?**

“학회활동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오랫동안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코성형연구회 초대회장을 했고,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을 2009년까지 역임하였으며, 현재에는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회장입니다. 병원 보직은 최근까지 도서관장을 했습니다. 교회활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남산교회를 2008년부터 시무장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현재 대구 YMCA 추천이사입니다.”



## 동문탐방

##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한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50회) 회장

### “모금액 年 200억으로 10배 늘린건 신뢰”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 경영에 주력한 것이 지난 5년 사이 연간 모금액이 20억원에서 200억으로 10배 늘어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 9월 6일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김노보 회장은 “이제 비영리공익법인(NPO)들도 기부 성과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들에게 신뢰와 보람을 안겨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2회째인 삼일투명경영대상은 삼일회계법인과 삼일미래재단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한다. NPO의 투명성과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보증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 어린이들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기구다.

김 회장은 2004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기업에 의존하던 후원시스템을 개인 위주의 모금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기업 후원금은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의 이미지 홍보가 목적인 사례가 많아 실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대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봉사프로그램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정보공개로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에 역량을 집중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올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모금한 약 200억원 중 개인 기부는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4000~5000명에 불과하던 개인 기부자 수는 이제 14만명이 됐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모금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것. 김 회장은 “온라인상에서 원하는 기부자들은 저희가 사용한 전표 1장까지도 열람이 가능하다”며 “혹독한 검증 없이는 믿지 않는 네티즌들에게 신뢰를 주는 봉사단체임을 알린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된 데는 2003년 도입한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ERP시스템을 통해 직원들 모두가 본인 또는 타 직원이 모든 예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15개 별도 기관에도 ERP시스템을 설치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전 세계 지사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감사 기준을 매뉴얼화해서 예산 집행 시에 항상 따르도록 했다.

외부 정보 공개 제도도 보강했다. 내외부 감사 결과 및 재무정보 등을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소식지와 연차보고서 등을 공개한다.

잠재적 후원자를 끌어오기 위함이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 내용도 공개해서 외부 기부자가 의문을 가질 경우 언제든지 답변하도록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정프로젝트의 고액후원자들에게는 별도의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기부자가 사업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김 회장은 “결과보고서 외에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기부자에게 보고한다”며 “구호 집행 과정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기부자가 보람을 느끼며 신뢰관계는 더욱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삼일투명경영대상이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발판으로 기부자에게 신뢰를 쌓는 제2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일투명경영대상에 참여한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는지, 재단 윤리 경영을 통해 사회책무성을 실현하는지를 기준으로 3개월간 심사를 받는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태식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주인기 연세대 경영대 교수,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내외빈 70여 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장인 윤 회장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정보의 적시성이 매우 우수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 윤리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잠재적 기부자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도 수상 배경이 됐다.

## 이승한(52회) 홈플러스 회장, 친환경경영으로 ‘국민훈장’ 수훈

### “친환경 경영은 비용이 아닌 투자”.. 11년간 환경경영 추진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10월 6일 우리나라 환경경영을 선도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포상 ‘국민훈장(동백장)’을 수훈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포상은 신성장 동력인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상품 보급, 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응 등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발굴·시상하는 정부 포상 제도로 이 회장은 이 수훈한 국민훈장은 이중 최고 훈격.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친환경 경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홈플러스 창립 이래 11년간 지속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점포 ‘그린스토어’ 오픈 및 탄소 제로 아카데미 설립으로 CO2 저감 선도, ▲국내 최대의 어린이 환경운동을 통한 미래 그린리더 양성, ▲CO2 라벨링 상품 확대 및 2차 포장재 줄이기, 자전거 그린마일리지 적립 등 소비자가 동참하는 녹색 소비문화 확산 등 국가 녹색성장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국민훈장을 수훈하게 됐다.

이 회장은 창립 초기부터 친환경 캐릭터 ‘e파란’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녹색가치경영’이라는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전사 CO2 배출량을 50% 감축(2006년 대비)한다는 목표로 전사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해왔다. 이에 ‘Homeplus Direct Carbon Footprint Tool(홈플러스 탄소 발자국 관리시스템)’을 구축, 2006년부터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부천시에 69개 친환경 아이템을 적용해 기존 점포보다 CO2 배출량 50%, 에너지 사용량은 40% 가량 줄인 우리나라 최초의 그린스토어 1호점 ‘부천 여월점’을 오픈했으며, 탄소 배출량 제로(0)를 실현하는 ‘홈

플러스 리더십 아카데미’ 설립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 회장은 녹색성장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녹색소비문화 확산에도 힘써 녹색매장 시범사업, 대형마트 최초·최대 규모의 CO2 라벨링 상품 판매, 불필요한 2차 포장재 연간 70톤 이상 감축, 자전거 이용 고객 대상 마일리지 제공 등 녹색소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e파란 어린이 환경실천단’을 지난 11년간 환경부 및 UNEP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속 운영해옴으로써 2만 명이 넘는 실천단원을 배출했으며, 향후 2020년까지 10만 명의 어린이 그린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는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설립, ‘환경사랑’을 테마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국내 산·학 최초로 서울대 AIEES(아시아에너지환경 지속가능연구소)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녹색소비를 주제로 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연구 등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생활지속발전 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UNGC(유엔

글로벌파트너) 한국협회장, UNEP(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이사, AIEES 발전위원장, 서울대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공동주임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총동창회장 등 범국가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국가 그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승한 회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선택이 아닌 인류존망과 직결된 필수과제로 기업, 소비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홈플러스는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로서 앞으로도 그린스토어 운영, 탄소 제로 아카데미 설립,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연구 등 다양한 환경경영을 통해 국가 녹색성장 비전 달성 및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포상 시상식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승한 회장, 이만희 환경부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환경 관련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9)

# 50년 전에 도서관 장서 7천권, 신관 증축 장학생 수 계속 증가, 후생복지시설 학생 중심 운영

1961년 4월 10일자 모교 교내 신문 <계원>(제 47호, 발행인 신태식, 편집인 하죽봉, 인쇄인 김철)을 보면 “역시 계성이구나!”하는 찬탄이 연발된다. 1961년 4월 발행이라면 시기로 보아 50회가 발행한 것이니, 지금 계성학교에 재학하는 후배들로 본다면 거의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다. 그러나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본다면 2010년 현재에도 자기네 학교에서는 꿈 같은 일들이 보도되어 있을 테니, 어찌 “역시 계성!”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표지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시작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2면은 ‘사설’인데 제목이 “새 시대에 바라는 것- 4월에 다시 생각하자”이다. 내용을 굳이 읽어보지 않더라도 <계원> 49호가 세상에 나온 때가 4·19 직후라는 느낌을 저절로 갖게 해주는 사설 제목이다.

3면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해마다 보는 장학생 수- 중·고 신입생 중 36명에게”라는 제목이 당장 눈길을 끈다. 29회 동거회 장학생으로 중학 김재화, 고교 이상민 군이, 계원회 장학생으로 중학 권혁수, 권혁돈, 김경년, 김성년, 박준우, 이경수, 하은규, 안해용, 김계웅, 서찬우, 이중화, 이상만, 김경식, 이명덕, 황순길, 김광두, 김재권, 고교 이상훈, 정성기, 한기식, 이문화, 이인권, 김영수, 김충장, 석금식, 김영준, 박훈, 강태수, 남기정, 김영춘, 김쾌상, 박섭, 김영섭, 강부웅의 이름이 보인다.

신문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본교 특설의 장학제도는 금년도 신입생 3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 중 1위~12위까지는 입학수속금을 지급하고, 13위~19위까지는 1.2기분의 납입금을 수여하는 바 영광의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 장학생 명단을 게재하는 것은 모교를 떠난 지 너무도 오래 되었고 또 옛날 일이라 기억이 까마득할 분들을 위해 추억의 재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미 50년 전에 이처럼 장학제도를 잘 갖춘 학교가 대구 시내에 또 있다면 어디 말해 보라는 자화자찬을 하자는 데에 사실은 그 목적이 있다. 게다가 50년 전의 학교신문이 10면, 11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다!

4면에는 도서관 장서가 7천 권인데 아직 부족하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지금도 장서가 별로 없는 학교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미 50년 전에 7천 권을 구비하고 있었으니 우리 계성의 교육력은 정말 대단하다.

5면에도 자화자찬할 내용은 이어진다. “임무현 형 서울공대 수위, 경대 합격률 90% 능가”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본문을 읽어보니 “김건일 형은 4위를 하였는데 서울대학교 교수회의서 본교가 1위와 4위를 차지한 데 대하여 센세이(당시 표현은 이랬던 모양)를 일으켰



▲ 김성재 재단이사장의 이름을 딴 성재관이 2층으로 1947년 9월에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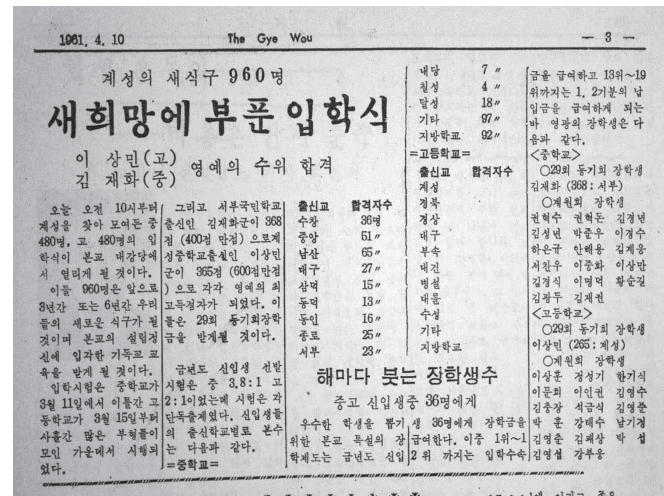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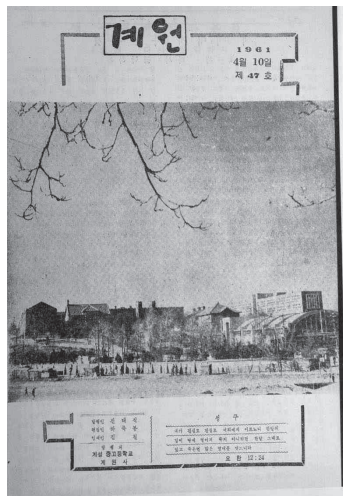
다고 한다.”는 내용도 있다.

5면에는 그런 성격의 기사는 또 있다. “계속 발전하는 계성- 신관 준공, 성재관 신축” 기사와 “준공된 신관 전경”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이다. 한강 이래 최초의 2층 학교 교사(校舍)를 쓴 계성학교이니 그 발전성이야 오죽할 것인가. 9면에는 “우리 학교 장학금 제도” 안내가 있고, “<후생부> 학생 중심으로

양 지도는 몇 주일이나 될까? 교목부의 회답을 바라오.”이고, 넷째 기사는 “임무현 형이 공대 톱을 해서 겨우 학교 위신을 지탱했지만 이번 공대 졸업생 중 수위가 또 우리 선배라나? 여하튼 공대는 계성의 명예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표창장이라도 수여?”이다.

6면에 실린 “敎師 李重華”(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음)의 한시 <祝 新入學> 중

1행을 함께 읽어보자. “啓聖年年送又迎”인데 번역은 “보내는 아쉬움/ 또 맞이하는 반가움/ 계성의 새봄은 말한다”로 되어 있다. 이제 자율형 사립학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모교의 앞날을 이미 50년에 이중화 교사는 ‘새봄’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듯하다.



## \* 편집자주

‘계성학교 교내신문 계원(啓園)을 읽으면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952년부터 발행된 계원은 우리 계성의 자람이자 향토교육사, 나아가 한국교육사의 귀중한 사료(史料)입니다.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은 우리 계성의 위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고 집필은 정만진(61회, 소설가) 동문이 맡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이나 빛바랜 사진을 keisung@keisung.or.kr (총동창회 사무국장 56회 김정길)로 보내주시면 동창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마대왕전 전폭 지원 바둑 저변확대 앞장설 터”



**이 재 윤 (56회)**  
덕영치과병원 병원장

“아마대왕전이 전국 아마 바둑대회 중 최고의 대회로 자리 잡아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바둑계의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아마대왕전을 후원하는 이재운 덕영치과병원 원장. 그는 2005년부터 6

년째 아마대왕전을 후원하면서 아마대왕전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대구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제28회 덕영배 전국아마대왕전이 10월30일과 31일 대구시 중구 덕영치과병원 특별대강에서 열린다. 전국 아마랭킹 100위 안에 드는 수준급 아마 기사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시니어부문 32강, 주니어부문 32강을 초청해 30일 부문별 예선을 거쳐 31일 부문별 16강 본선을 치른다. 본선 결승은 시니어, 주니어 최강자를 가려 통합결승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고,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20만원씩 연구지원비를 준다.

“다른 아마대회는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해 인간미가 없어요. 우리 아마대왕전은 젊은층과 노년층을 다 아우르게끔 시니어 주니어 부문을 두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이 원장은 상금도 아마대회 중 가장 많고, 초청 아마 기사 모두에게 식비와

숙식비도 제공한다고 했다. 예선전을 마치면 만찬회도 열려 바둑대회가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바둑애호가들은 아마대왕전에 초청을 못받으면 팬스레 서운해하고 초청을 받으면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아마대왕전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고 귀띔했다.

“바둑은 흑과 백, 그리고 바둑판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게임이며 최선의 수를 찾는 과학적 게임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회가 공정하고 자기 의도가 가장 가미된 두뇌플레이예요.”

아마 6단인 이 원장은 바둑 예찬도 대단하다. 바둑을 둔지 23년이 넘는 이 원장은 대구시바둑협회를 설립해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대구 바둑계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바둑을 수담(手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전하는 깊은 뜻이 담겨있죠.”

이 원장은 바둑이 민간외교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대구시바둑협회와 일본 후쿠오카 바둑협회가 17년째 바둑 교

류전을 갖고 있다는 이 원장은 세계로타리 바둑동호인 회장직도 맡아 한국, 일본, 대만 3개국간에 12년째 교류대회도 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바둑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단자 입단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이들이 바둑을 좋아하지만 입단폭이 좁아 진로가 불확실해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바둑을 잘두면 특기생으로 대학진학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구에 프로기사가 3명밖에 없는 것도 이런 연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사)전국아파트임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인 이 원장은 작년, 올해 2차례 무의탁 노인과 다문화가정 150여 명에게 무료로 치과진료도 해주고 있다. 또 필리핀 가가안섬에 4차례 방문해 주민들에게 임플란트 200개를 무료로 해주었는가 하면 치과 의료기술도 전수해주었다. 이 원장은 민족통일협의회 중앙회의장, 대통령자문통일 고문 등 7, 8개의 직함을 갖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 병원성장 비결?...“진료가 곧 경영” 혼신 다한 게 밑거름



**구 자 일 (65회)**  
구병원 병원장

구병원 구자일 병원장은 진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바로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개원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고개를 갇웃거렸다. 종합병원도 아니고 외과 의사가 개원해서 버틸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이었다.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제안도 받았지만 “밖에서 종합병원을 만들어보겠다”며 완곡히 거절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전공의를 하며 모은 돈으로 어렵사리 장만한 작은 아파트까지 팔았다. 병원을 짓는 것은 엄두도 못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통째로 빌렸다. 꼭대기층에 살림집을 마련하고 3년을 그렇게 살았다. 24시간 진료였다. 새벽에도 환자가 오면 뛰어나갔고, 입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눈을 부비고 일어났다. 직원 7명으로 시작한 병원은 지금 전문의 21명, 직원 200여 명의 병원이 됐다.

### ◆“무조건 낮게 해주겠다” 안심

구병원 구자일 병원장은 1991년 처음 개원할 때를 떠올리며 ‘무자용맹’, 즉 “무식하다보니 용감했다”며 우스개를 던졌다.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복막염에 걸렸단다. 아픈

배를 부여잡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만난 외과의사(당시 레지던트이던 유원식 현 철국 경북대병원장)의 모습에 반해 외과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줄곧 흔들리지 않았다.

“개원한 지 1주일 만에 환자 10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년 만에 16병상에서 50병상으로 늘렸죠. 한달에 수술만 100여 명, 외래 환자 300여 명을 봤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믿음을 줬다. 고통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무조건 낮게 해주겠다”며 안심시켰다. 맹장염, 복막염, 탈장, 치질 등 외과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수술은 다했다.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몰려왔죠. 특히 치질수술은 당시만 해도 민간요법에 의존해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수술받은 환자들이 ‘수술해도 재발이 없다’는 입소문을 내면서 환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내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과, 방사선과까지 갖춘 12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호사다마탈까. 1997년 말 갑작스레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병원 시설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때였다. “이자율이 28%까지 치솟던 때였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1억 2천만원 이상 나갔죠. 빛이 1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술 환자에게 약도 제대로 못쓴다는 악성루머까지 들려왔다. 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부터 빛이 줄기 시작하더군요. 병원 경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제게는 진료가 곧 경영입니다.”

### ◆남들은 꺼리던 항문질환 눈 돌려

구 원장에게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1997년 일본 도쿄에 있는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다녀온 뒤 특화병원에 눈을 땀다. “이미 일본에는 장기별로 특화된

전문병원이 추세였습니다. 서서히 방향을 전환할 때가 온 거죠.”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꺼리던 항문질환에 눈을 돌렸다. 10여년 전만 해도 구병원을 찾아온 치질환자는 한달에 30~50명선. 지금은 500~700명을 헤아린다.

여러 차례 위기가 왔지만 그는 스스로를 믿었고, 병원 가족들을 믿었다.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위기는 지나간다고 믿었다. 병원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시간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대했다. “내가 안되면 대학병원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치료하도록 했죠. 응급환자도 바로 치료했습니다. 주위에서 농담삼아 ‘구병원은 5차 병원’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교통사고로 간이 파열된 환자가 응급실로 왔다. 혈압은 30으로 떨어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기다가는 도중에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보호자와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서 구 원장은 담당 경찰관에게 즉시 수술을 해야겠다며 동의를 구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이 이뤄졌지만 끝내 환자는 숨졌다. 하지만 늦게 찾아온 가족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한 번은 5살난 어린이가 탈장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왔다. “수술대에 눕혀놔는데 그만 몸부림을 치다가 떨어졌습니다. 행여 다쳤을까봐 CT까지 찍고, 이후 후유증이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죠.” 정성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퇴원했고, 아이의 부모는 항의는 커녕 오히려 믿음만한 의사라며 다른 환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 ◆안주하는 순간 추락

지난 6월 15일 구병원은 작은 기념식을 가졌다. ‘대장 항문(대장암, 직장암, 치질, 치루 등) 질환 수술 5만5천 사례 달성 및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수술 200사례, 대장암 직장암 수술 800사례 달성 기념식’이었다. 이런 진료 실적은 국내 3위에 해당한다.

2007년 130억원을 들여 병원을 완전히 리모델링했다. 사람과 건물 뼈대 말고는 다 바꿨다. 환자 편의를 위해 CT 및 MRI실은 1층에 두었고, 대장항문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종합건강센터, 대장내시경센터, 수술실 등을 깔끔하게 새로 단장했다. “1997년에도 병원을 확장한 뒤에 외환위기가 찾아왔는데, 2007년에도 빛을 내서 병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갔지만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꾸준한 병원 투자가 바로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구 원장은 병원은 비행기나 마찬가지로 말한다. “안주하는 순간 그저 머물거나 멈춰서는 게 아니라 바로 추락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현금으로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 여건이 허락하는 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및 연구활동에 매년 참가한다. 매주 수요일이면 대장항문 진료팀과 함께 최신 수술법에 대한 연구회를 열고 있다. 환자를 대하는 임상 의사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논문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영남대병원 의료원장을 역임하고 대장항문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심민철 박사가 구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 “제 은사이기도 한 심박사님이 합세하면 구병원의 진료팀은 더욱 막강해질 겁니다.” 질환 부위의 특성상 젊은 여성 환자들이 부끄러워서 검진이나 치료 받기를 꺼릴 수 있다. 그 때문에 지난봄에는 대장항문 분야 여성 전문의인 김현진 과장도 영입했다.

“병원은 앞으로 치료 중심 병원에서 예방 중심의 진료 및 검사 위주의 병원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 병원도 1회 방문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구 원장은 “지금도 어떤 환자가 자신을 기다릴 지 설레인다”고 했다.



# 72회, '홈커밍'의 역사를 새롭게 쓰다.

## 동기와 동기가족 350명을 비롯, 모두 417명 참여, 168P 홈커밍 기념책자 발간



▲ 50계단에서 재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72회



▲ 대강당 기념식장에 모인 72회

가을 날씨가 완연한 10월 늦은 어느 토요일 오후1시. 빨간색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악대부의 축하연주가 교정가득 울려 퍼졌고 400명이 넘는 무리들이 교문을 지나 레드카펫이 곱게 깔린 50계단을 힘차게 올랐다.

72회 동기생들의 졸업25주년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시작됐다.

레드카펫 양측에는 재학생들이 축하행렬을 이뤘고 50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끝없이 이어졌다. 하나 둘 셋 넷... 이날 행사에 참여한 72회 동기들은 모두 227명. 가족들을 합하면 350명에 이른다. 여기다 은사님 47분과 후배들 20명을 합하면 417명으로 400명을 훌쩍 넘어선다. 이 대열에 함께 하신 은사님들은 '최근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동기들은 벅찬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 수업과 기념식, 만찬, 화합의 한마당, 야자시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축제의 웅장한 서막이었다.

동기들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고 학창 시절 추억의 계단을 올랐고 마음은 이미 25년 전 지각 데드라인에 서서 까마득한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오르던 그 날로 내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은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아름다운 앵글로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이윽고 행렬은 유도관 옆 내리막길에 멈춰 섰고 25년의 변화된 모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단체사진에 이어 아담스관 앞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반별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고 사진촬영을 마친 동기들은 졸업당시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각 반별 1교시 수업에 들어갔다.

수업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손때 묻은 책걸상은 간곳없고 삐거덕거리며 앞뒤로 반쯤 열린 창문도 깔끔한 새로운 시설들로 바뀌어 버렸지만 우리들은 선생님과 함께 학창시절 에피소드들을 나누며 마치 그 때의 10대로 돌아간 듯 깔깔거렸다. 또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모습들을 얘기하며 25년의 짧고도 긴 시간들을 추억했다.

3시20분을 지나면서 수업을 마친 반부터 하나둘씩 강당으로 모여들었고 은사님들을 단상으로 모신 다음 후배 재학생들의 식전 사물놀이 공연으로 흥을 돋웠고 이기호 동기회장의 개회선언으로 2교시 기념식의 막이 올랐다. 동기도종원 목사의 기도와 이기호 동기회장 조영주 재경동기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김태동 이사장의 회고사와 이병구 총동창회장의 축사, 김재현 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과 장학금 전달,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학금은 후배 재학생 15명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직접 전달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2교시 기념식의 마지막을 알리는 힘찬 교가소리가 울려 퍼지기까지 동기들과 그 가족은 물론 은사님들과 후배들 모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추억의 책장을 넘겼고 25년만의 재회라는 가슴 벅찬 역사의 현장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오후 5시. 3교시가 준비돼 있는 그랜드호텔로 향해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동기들은 추억이 흠뻑 배어있는 교정을 떠나기가 못내 아쉬운 듯 연신 뒤돌아보며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진행



▲ 모교에서 은사님들과 함께 기념촬영





▲ 그랜드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3교시 만찬



▲ 그랜드호텔에서 여흥을 즐기는 72회

된 3교시 만찬. 호텔에서 가장 큰 흥이 었지만 테이블당 10개의 자리를 뺏뺏이 깔고도 모자랐으니...

오후 6시, 이기호 동기회장의 만찬사는 25년의 추억들을 오늘로 불러냈고 수고한 동기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축하 케익 커팅을 거쳐 높이 치켜든 축하배의 잔이 '짹' 하고 부딪치면서 축제는 최고조에 달했다. 건배는 테이블마다 끝없이 이어졌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뭉다했던 이야기들로 시끌벅적했고 벽면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는 올 한해 동기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슬라이드로 올려지면서 흥안은 모두 '72'로 하나였다.

1시간여의 시간이 흘렀을까. TBC에서 MC로 활약하고 있는 한기웅MC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밴드와 댄스팀의 축하공연과 은사님 초청무대, 반별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으로 이어지는 화

합 한마당이 시작됐다.

맨 처음 분위기를 몰아간 것은 이기호 회장이 몸담고 있는 이사금밴드.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보컬그룹이다.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 좋아 진료에 바쁜 시간들을 쪼개어 틈틈이 연습하는 아름다운 열성과열인 것이다.

한국 두곡 이어지면서 장중은 완전히 들떴고 여기저기 엉덩이를 연신 흔들며 댕고 무개잡고 참고 있던 이기호 회장도 분위기에 이끌려 무대로 뛰어올라 밴드의 마무리곡을 목청껏 열창했다.

이어 진행된 반별 노래자랑은 늘씬한 미녀들로 구성된 전문 댄스팀의 공연과 어우러져 흥을 뜨겁게 달궜고 수많은 경품 세례 속에서 축제는 식을 줄 모르고 활활 타올랐다.

하지만 시작은 이미 끝으로 달린다 했던가! 아카리카치~ 아카리카쵸~ 우리들은 오늘의 열정과 하나됨을 구호에 실어 마음껏 내질렀다. 그리고 교가를 함께 부르며 너무나 아쉽고 조금은 슬프기까지한 이 함께한 자리를 일어서면서 가슴 가득 서로를 안으며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이어 각 반별 야자시간이 계속됐고 원없이 한없이 새벽까지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다.

홈커밍! 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뻐다. 400명이 훨씬 넘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 날의 열정과 화합, 그리고 하나된 동기들의 체온이 아직도 따스하게 남아있고 영원히 식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홈커밍발대식을 시작으로 동기회 사무실을 열고 가족체육대회를 치르며 홈커밍의 분위기를 띄우고 반창회를 순회하면서 동기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 올해로 세번째 발간되는 소식지도 가능한 많은 동기들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168P 홈커밍기념호로 볼륨을 키웠고 수많은 동기들의 소중한 글들과 소회들을 담아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작지만 소중한 결과물을 내놓았고 "소장하며 간직하고 싶다"는 동기들의 말들로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홈커밍을 준비해 온 준비위원들은 사실 격정도 많았다.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떻하나. 행사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기호 동기회장의 일성(一聲), "회비를 많이 걷기보다 최대한 많은 동기들이 함께하는 홈커밍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준비위원 모두 100% 공감했기에 오직 많은 동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오늘의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게 동기들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하나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기들 모두의 마음이었다.

이기호 동기회장과 조영주 재경동기회장을 비롯해 총무단과 기획, 편집, 홍보 등 각 부문 준비위원들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애쓰고 수고한 수많은 동기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행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 박운흠(72회, 편집위원장)

## ‘준비된’ 자사고 “계성고등학교 이래서 좋습니다.”

계성고등학교는 대구 최초의 중등학교로 1906년에 개교하여 104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명문 사립입니다. 그동안 6만여 명의 동문들이 배출돼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인프라는 계성고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성고는 2010년부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성고의 특징은 먼저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 아래 3년간 최대 246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8교시까지 본 수업을 실시해 주요 과목의 수업 시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각종 전문 교과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자유 선택 교과, 관련 교과 집중 이수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상 수업 이외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선택 특강제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강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 멘토제를 실시, 부족 과목의 교과교사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맞춤형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동아리활동으로 운영되며, 셋째 주 토요일은 봉사활동으로 운영합니다.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꽃동네 봉사활동, 사관캠프, 응급처치 과정, 청소년 트레킹과정, 명사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7월에는 상하이 국제청소년과학기술엑스포에 한국 대표 학교로 참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 1, 2월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성고는 약 400억원을 들여 최신시설과 기숙사를 갖추고 2012년에 서구상리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2012학년도부터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성학원과

계성총동창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연간 200만원(1~10위), 100만원(11~30위)을 지급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적 배려대상자 전원에게는 각종 지원금 외에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교 법인의 경제적 지원과 6만여 동문들의 정신적 지지는 계성고의 큰 장점입니다.

### 최용결(50회) 세무사, 스승의 날에 이형두 은사님 자택 방문

저는 1,957년도에 계성중학에 입학한 후 점심 식사도 거르고 있을 때 이 형두 선생님께서 주신 식권으로 빵과 우유를 먹은 것이 너무나 기억에 남아 있어 계성학교로부터 살고 계시는 주소와 전화를 확인한 후 찾아 뵈었던 것

최 동문은 큰 교통사고를 겪었으나 건강을 회복한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세무 문제로 고민하는 동문들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동창회에 연락 (010-3857-8551/팩스02-2277-1501)을 보내왔다. 사진은 편지의 일부.



인물

## 신현수(45회)동문 안동의료원장 7번째 재선임 1992년 첫 부임... 국내 최장 공립병원장 기록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이 7월 1일자로 일곱번째로 다시 선임돼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이날 안동의료원 개원 27주년 기념식을 가진 신 원장은 직원들에게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한 의료원 기초 다지 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신 원장은 1992년 첫 부임 이후 모두 일곱번째 안동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국내 최장기록을 세웠다. 당시 80 병상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원을 현 360 병상 종합병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신 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 QI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 국내 두번째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WHO-HPH) 가입,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현장제 최우수상, 노동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수상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공공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의료복지 증진 분야에 대해서도 신 원장의 탁월한 의료서비스 개선 능력에 상당한 기대를 모은다.

신 원장은 1972년 경북도립안동병원(현 안동의료원 전신) 외과 과장을 시작으로 외과병원을 운영할 때와 안동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항상 어려운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해주는 등 참된 의료인의 자세를 잃지 않아 지방선거때마다 타천 출마를 권유받을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1958년 대구 계성고를 나와 경북대 의대(외과 전문)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 대구경북병원협회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 한국·스웨덴친선협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평통자문회의 안동시협의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을 맡는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며 의료 및 적십자 봉사분야에서는



▲ 7월 1일 취임한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이 병원개원 기념식을 가진 후 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독보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1년 의업대란때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자랑스런 경북도민상을 받았다.

## 제일테크노스 사장 철강공단 이사장 첫 직선제 당선 나주영(62회) 철강공단 이사장 “능동적 운영으로 회원업체 지원 최선”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 철강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회원업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강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직선제 투표를 통해 이사장에 선출된 나주영(62회) 제일테크노스 사장은 가장 먼저 회원업체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나주영 사장은 “직선제를 통해 회원업체로부터 선택된 영광과 함께 회원업체의 권익과 불편해소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철강원료는 물론 비철금속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제품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공단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공단 입주 업체의 경영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찾

아가 해결하는 능동적인 관리공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우리 철강산업은 국제경기에 민감해 회원업체들은 타 지역보다도 더욱 힘든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임기 3년 동안 관리공단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환경에 발맞춰 회원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은 물론 산업단지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업체간 보다 활발하고 유익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업체간 만남의 장을 넓히고 쾌적하고 청결한 생산활동을 위해 공단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철강제조업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근로자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영 사장은 “불합리한 법적 문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측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원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주 출신인 나주영 사장은 계성고와 경북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한 뒤 제일합섬을 거쳐 지난 1990년 제일테크노스의 전신인 제일중공에 입사, 1997년 대표이사에 올랐으며 현재 경북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과 포항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펴고 있다.

# 꽃집 자운영

경조화환 | 관엽 | 동서양란 | 꽃바구니

전 · 국 · 배 · 달

## 최 돈 문 (56회, 동기회 총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96(동인꽃도매상가입구)  
TEL : (053)424-0099 FAX : (053)424-4499  
H·P : 010-8822-1400  
E-mail : cdm1030@hanmail.net



# 대구 야구의 역사...1906년 계성학교 선교사가 첫 보급

우리나라에 야구가 소개된 것은 1905년 YMCA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에 의해서였다. 대구에서는 1906년 계성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이 야구 클럽을 보급하면서 알려졌으며, 1912년 계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벌인 경기가 첫 시합으로 전해진다.

1914년 7월 말 대구 첫 공식 야구경기가 열렸다. 동경유학생 야구팀이 대구를 방문, 대구의 청년단과 경기를 벌인 것.

1920년에 대구청년회가 결성됐고 여기에 야구부가 만들어져 원정 경기를 다니며 야구 보급의 주역이 됐다.

그해 가을 경남 마산으로 원정 간 대구청년회팀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 야구가 일찍 보급된 마산팀을 맞아 7대2, 17대2로 대승하기도 했다.

1922년에는 대구 첫 야구대회가 열렸다. 참가팀은 대구고보, 회도학교, 해성학교 등 7개팀이나 됐다.

‘부민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 오전 9시가 못 돼 동운정 야구장은 초만원을 이뤘다. 학교, 단체마다 팽과

리, 징을 든 응원단의 치열한 응원전이 펼쳐졌다.

해성학교는 1회전에서 회도학교를 19대16으로 이긴 뒤 성진단, 광진단을 차례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경북체육사) 야구왕으로 불리는 이영민(12회)은 계성학교 출신이었다. 서울 배재고로 옮겨간 그는 1924년 전조선야구대회에서 주전으로 활약해 우승했고, 이어 벌어진 전조선축구대회에서도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 우승을 이끌었다.

대한야구협회가 ‘이영민타격상’을 제정할 만큼 명타자였으나 축구와 육상에서도 조선 대표팀으로 뽑혀 활약했다.

1920년대 후반에는 계성학교 외에 대구고보, 대구상업에서도 학생들이 야구부를 조직해 중학교 팀이 7개였고, 소학교 팀도 10개나 됐다.

1930년대에는 대구전매국, 경북도청, 대구부청, 남선전기 등 직장야구단이 정기적으로 경기를 벌이며 야구열기를 이끌었다.



▲ 1910년대 야구. 두루마기 차림으로 시구를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 제1회 대구시 고교 동문 테니스대회 참가, 계성동문테니스회 발족

8월 22일 칠곡 우정테니스장에서 제1회 대구시 고교 동문 테니스대회에 모교 테니스 동호인 11명이 참가했다.

상원고등학교 OB테니스동문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대회에 모교동문으로는 참가비 200,000원을 총동창회에서 지원받아 54회 허정, 박순길, 56회 이경우, 63회 김형규, 박정화, 69회 김진용, 장영중, 72회 김병철, 서종교, 황석동, 74회 이승우 동문 등 11명이 참가하여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모교의 명예를 빛냈다.

갑자기 개최된 대회라서 수준급 실력을 갖춘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예선이 넘은 허정, 박순길 동문을 비롯하여 이경우 동문 등은 젊은 나이 못지않은 수준급 실력으로 후배들을 감탄케 했다.

내년에는 대구고등학교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더 많은 학교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10월 22일(금) 오후 6시 대구교육대학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사랑하는 계성동문들이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가지고 총동창회 산하 테니스회를 발족시켰다.

총동창회 후원으로 가진 이날 모임은 1부 순서로 6시부터 10시까지 동문 친선테니스시합을 가졌으며 이후 마련된 2부에서는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순서를 가졌다.

지난 8월 22일 개최된 대구시 고교동문 테니스시합을 계기로 출발한 동문테니스회는 이날 정식으로 임원진을 선출하고 고문에 허정(54회), 감사 김형규(63회), 곽호원(64회), 회장 이경우(56회), 부회장 성연복(61회), 박정화(63회), 사무국장 장영중(69회)을 임명하였으며, 매월 넷째주 금요일 교육대학 테니스장에서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모임

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처음 시작하는 모임이라 아직 홍보부족으로 많은 동문들

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점차 모임의 규모와 내실화를 다져 테니스를 즐기는 동문들의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NICE그룹배 재경대구경북고교동문 바둑대회 계성고 1위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대구경북 재경 고교 동문 기우연합회 및 계성기우회가 주관하는 제8회 NICE그룹배 재경 대구경북고교동문 바둑대회에서 계성고, 대건고가 단체A, B조 각 1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경북고 출신 백남근 씨가 A조 1위, 대건고 김대우 씨가 B조 1위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전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을 비롯해 A조 우승자에게는 공인 5단증, B조 우승자에게는 공인 4단증이 수여됐다.

우리금융그룹 파이낸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 씨는 “객관적 실력에서는 많이 모자랐지만 운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고, 경기도 김포의 중등학교

교사로 있는 김 씨는 “최선을 다해 뒀는데 행운이 따른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날 바둑대회에는 1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기가 뜨거웠다. 기우연합회 배명은 사무국장은 “출전 선수가 매 대회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구경북 출신 동문회가 단합하면서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영 매일신문사 사장은 대회사에서 “원하는 모든 곳에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바둑이야말로 창의적인 도전”이라며 “대구경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재도약의 기회를 맞은 만큼 뛰어난 창의성을 고향 발전에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계성중 유교문화 향기속 70km 도보 국토순례

## 학생, 학부모, 교사 120명 함께 영주, 봉화, 안동 2박3일 행사

“유교문화의 본거지를 다니면서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체험하겠습니다.”

계성중학교(교장 손용식)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방으로 국토순례를 떠났다. 올해로 5회째인 국토순례는 3학년 학생 90명과 학부모 10명, 교사 20명이 함께 70km를 순례한다.

국토순례에 참가하는 강민창(학생회장) 군은 “70km 행군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다”면서 “걸으면서 생각할 기회도 가져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보겠다”고 말했다.

11일 학교를 출발한 국토순례단원은 첫 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앞에서 순례를 시작해 순흥

선비촌 소수서원 등 유교문화 유적과 소백산 주변의 경관을 답사한다. 둘째 날인 12일은 봉화군 봉성면에서 순례를 시작해 청량산을 거쳐 안동 국학문화회관에 도착해 행사를 마친다. 마지막 날인 13일은 국학문화회관을 출발, 이육사문학관을 거쳐 안동 단사 낙동강변에서 국토 순례를 마감한다. 이날은 퇴계이황 선생의 유적과 향일운동에 앞장섰던 이육사 선생의 자취도 더듬어 본다.

이번 국토순례를 이끄는 손용식 교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고 국토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토순례를 계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모교 소식

#### ■ 상하이 국제청소년과학엑스포 최우수 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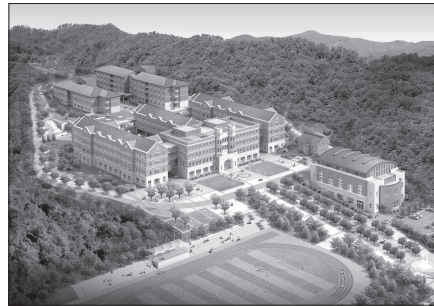
지난 2010년 7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회 상하이 국제청소년과학기술엑스포(SIYSTE; Shanghai International Youth Science and Technology Expo)에 계성고등학교 학생 7명이 LG Global school 학생 5명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였다.

상하이 과학기술위원회와 상하이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상하이 국제청소년과학기술박람회는, 2005년과 200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세계 각지에서 온 젊은 학생들이 과학 분야의 우수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무대이다. 제3회 SIYSTE 대회는 2010년 3월 8일까지 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 중 예선을 거친 세계 18개국 50팀(중국 23팀 포함)이 참가하였다.

참가 팀 중 가장 많은 준비를 한 계성고등학교의 과학 부스(성지현, 문석준, 윤상수, 권도현)와 애니메이션(이동, 김동규, 이유정)은 상하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현지 방송국과 인터뷰도 하였고, “Excellent Display”상과 “Good Work in the On-The-spot”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본선 참가학생 219명 중 13명의 학생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논문”상을 “A study about wetland as a way to deal with the climate change”란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한 성지현(17·계성고 1년)양이 수상하였다. 그 외에 이동, 문석준, 김동규, 윤상수, 이유정, 권도현 등 6명의 학생들이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고, 교사 84명이

참여한 교사 포럼에서 계성고등학교 남정완 교사가 18명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 ■ 모교 신축 이전



모교 신축 교사 설계 설명회가 지난 9월 2일 본관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되었다. 법인 이사장과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전반에 대한 개요와 일정, 설계 도면에 대한 해설로 진행되었으며, 9월 10일까지 세부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정표에 따르면 새 교사는 2010년 11월 착공, 2011년 4월까지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를, 7월까지 골조공사를 2011년 12월까지 외부·내부 마감공사를 마치고 1월까지 조경과 시운전을 하여 2월에 준공하고 이사를 완료하여 3월에 개교하게 된다.

#### ■ 영어 전용 교실 개소식



친화적인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어 전용 교실을 9월 2일 완공하고 오전 11시 개소식을 가졌다.

전용 교실은 교사실 1실, Book Cafe 1실, English Classroom 1실을 갖추고 전자칠판, 전자 교탁 등 각종 현대적 기기를 비치하였다.

#### ■ 명사 초청 강연



지난 9월 9일 1학년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 강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을 한 41회 이상기 동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국제법학 교수로 한동대에서 3년간 재직하였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크리스찬으로서 국제화 교육을 선도하는 방법 등을 강의하였다.

#### ■ 자율형 사립고 입학설명회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제1차 입학설명회가 10월 16일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3 학부모와 중학교 3학년 교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설명회는 계성 100년의 학교 역사를 소개하는 동영상 방영과 김재현 교장의 인사, 이어서 유철환 교감이 자율형 사립 계성고등학교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용익 기획실장의 입학전형 요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별도 마련된 5개의 입학 상담 부스에서는 학부모님들과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본교의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이었다.

제2차 입학설명회는 11월 6일 오후 2

시부터 본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 ■ 유도부



2010 그라미 OPEN 전국유도대회 -66kg 1위(3학년 권재덕), -81kg 3위(3학년 김도현)

홍콩 OPEN 국제유도대회 -60kg 1위(3학년 권재덕)

제81회 YMCA 전국유도대회 -73kg 3위(3학년 곽봉주), -81kg 3위(3학년 김도현)

제38회 춘계전국 남녀유도연맹전 -81kg 1위(3학년 김도현)

2010 하계전국 남녀유도연맹전 -81kg 3위(3학년 김도현)

제39회 전국소년체전 -45kg 1위(중3학년 김효식)

제38회 추계전국 남녀유도연맹전 -51kg 1위(중3학년 김성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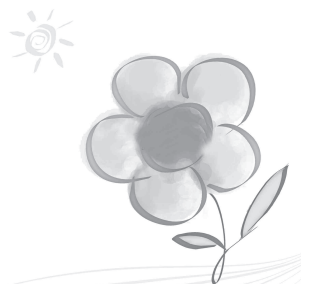
#### ■ 농구부

2010 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준우승

#### ■ 불링부

제2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불링대회 3인조 준우승(3학년 조연식)

제12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불링대회 2인조 우승(3학년 조연식, 김한민)





## 지부 소식

## ◆ 재포지부



제18회 재포 계성 동문가족 체육대회를 2010년 6월 12일 10시 우현동 소재 대동고등학교(교장:김현호(43회) 실내체육관에서 이성환 고문(46회), 김찬호(55회) 회장, 재포계성동문가족 160여 명과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 백경진(53회) 총동창회 부회장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그리고 김태동 계성학원 재단이사장 등이 재포동문회를 격려 차 참석해 재포 동문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선.후배간의 정을 깊이 나누었다 체육대회에 앞서 2010년~2011년도의 신입회장단 선출에서 정제일(58회) 전임 재포동문회 감사가 신입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9월 30일에는 재포계성동문회 신입회장단과 2010년에 포항지역에 전임 온 강성주(58회) 포항MBC 사장, 김기현(72회) 대구검찰청 포항지청 부장검사 등과 상견례 겸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고, 또한 10월 21일에는 2010년도 3/4분기 정기모임을 양학동 소재 진원숯불갈비(대표:장상근(75회) 에서 50여 명 참석 한 가운데 개최하여 2010년도 “재포계성동문 송년의 밤” 을 12월 14일(화) 19시 목화웨딩 홀 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기별소식

## ◆ 제49회

△회장 : 설춘수  
△총무 : 임병용

지난 8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설춘수, 총무 임병용, 문화부장 신갑훈 동기를 선출하였다.

## ◆ 제53회

△회장 : 정갑동  
△총무 : 김기표

지난 6월 19일(토) 오후 7시 새로운 사무실에서 동기생 28명이 참석하여 사무실 이전을 기념하여 조촐한 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소식 전하지 못한 동기생들이 소주잔을 서로 주고 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반갑게 이야기 꽃을 피웠다.

한편에선 바둑을 두고 또 한편에선 동양화를 그리며 하루 저녁을 즐겁게 보냈다. 동기회 사무실은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82-1번지(우림약품 빌딩 4F)에 위치하

고 있다.



## ◆ 제54회

△회장 : 박기창  
△총무 : 우진권, 최정태

2010년 3차 이사회가 9월 17일 내당동 삼정회수산에서 개최되었다. 박기창 회장을 비롯하여 30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체육대회 일정과 동기회 회칙 일부 개정을 논의하였으며 신실 조항에 전원 동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 제56회

△회장 : 김태수  
△총무 : 최돈문

지난 5월 15일~16일 1박2일간 울진 한화리조트에서 동기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합대회 겸 환갑잔치를 가졌다. 9월 28일 김조한정식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 제59회

△회장 : 추교원  
△총무 : 이전기

59회 동기회 바둑대회를 10월 23일(토) 범어동에 위치 한 한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추교원 동기회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속에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동기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제60회

△회장 : 이인직  
△총무 : 진동현, 성백관

2010년 3월부터 문화, 의료, 교양,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 경력을 쌓은 60회 동기생 친구들을 연사로 초빙하여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고 유익한 배움의 모임이 되고자 <계성60회 교양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새로운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일시 :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아메리칸 쉼트 박물관 2층 전시실(남구 대명9동 T. 053-431-1111)

회비 : 1만원

60회 골프대회(회장:조재태, 총무:이영출/서울 회장:김해운, 총무:김동진)가 팔공컨트리클럽에서 5월 5일 개최되었으며, 총 9개팀 35명이 참석하여 우승에는 이승훈, 여자우승에는 이영출 동기 부인, 메달리스트에는 이영출(총무)이 차지하였다. 내년 5월 만남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지난 5월 16일 총동창회 등반대회를 마친 후 인근 장소인 <곤술밭 식당>에서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오랜만에 만나서 흥겨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0월 19일 18시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삼성라이온즈와 SK와이بن스의 4차전 경기를 관전하였으며, 동기들 20명이 참석을 하여 흥겹고 즐거운 시간 속에서 화합을 다졌다.

## ◆ 제61회

△회장 : 이창재  
△총무 : 배영호

지난 8월 14일~15일 충북 제천 금수산에서 동기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61회 여름 축제를 개최하였다.

10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삼포 가는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 ◆ 제62회



△회장 : 박태환  
△총무 : 구철교

지난 10월 9일~10일(1박 2일) 남이섬,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 리조트에서 동기부부 및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졸업 35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 ◆ 제63회



△회장 : 김동익  
△총무 : 서유덕

지난 5월 5일 부부동반으로 대구, 서울, 부산, 대전, 포항지부의 101명이 전국지부연합 등반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대전 8경 중 하나인 식장산에서 산행을 하고 맛있는 오리구이와 동동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모교 운동장에서 68명의 동기와 가족들이 계성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에서 입상상을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하게 되어 즐거움을 한껏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며, 뒤뜰이에서도 종합우승에 힘입어 다시 한번 동기들의 화합을 다지는 하루가 되었다.

## ◆ 제65회

△회장 : 장유석  
△총무 : 한 웅

9월 9일 저녁 수성구 모처에서 역대 고문단과 집행부가 모여 다가오는 계성가족체육대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회동은 장유석 회장이 고문단을 초청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석한 고문들은 권경훈, 이승화, 한동로, 정재원, 구자일 고문 등이었고 집행부에서는 장유석 회장, 한 웅 수총, 박영태 재무, 서석태 섭외, 그리고 권택성 홍보 총무가 회동하여 동기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아울러 현재 공석 중으로 있는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자리를 조만간 확정하여 동기회의 역사를 이어 나가야 함을 인식하고 물망에 오른 동기에 대한 고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홍종욱 부회장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라 차기 회장에 추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에 한 웅 수총이 조만간 접촉하여 타진하고 또한 고문들도 적극 추천하여 힘을 보태기로 하여 체육대회 뒷뜰이에서 확정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날 경비는 한동로 고문이 먼저 계산을 마치는 바람에 장 회장은 KBS 근처의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 잔하고 12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파하고 모두 귀가하였다.

## ◆ 제66회

△회장 : 김중옥  
△총무 : 김홍철, 조성원

66회 동기골프회가 2009년에 창립되어 현재 김홍용 회장(세원 인더스 대표)이 잘 이끌어 가고 있으며 11월 6일~7일 1박 2일간 제주도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 ◆ 제69회

△회장 : 이강호  
△총무 : 김도균, 우종식

지난 10월 17일 동기회원 19명(대구 이강호 회장과 6명, 서울동기 11명)이 총동창산우회 주최 속리산 산행 후 안재갑 산우회장의 찬조로 준비한 오리 바베큐, 납작만두, 소주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69회 2010년도 정기총회를 임윤호 동기가 경영하는 수성구 신매동에 위치한 “낙지 한 마리”에서 12월 17일 오후 7시 개최 할 예정이다.

## ◆ 제70회



△회장 : 서준호  
△총무 : 김수용, 김진혁

지난 10월 9일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동기가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 옛골식당에서 뒤뜰이 행사를 가졌다.

10월 17일 대구 서울 합동산행에는 14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좋은 날씨에 멋진 친구들과 함께 남군자산의 정기를 듬뿍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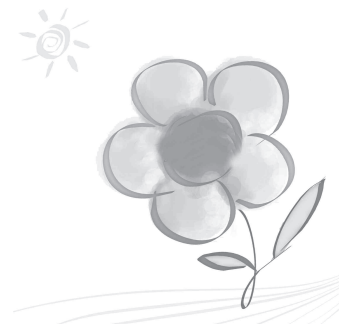
12월 4일(토) 6시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총회가 있는데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하였으면 한다.

## ◆ 제77회



△회장 : 이진원  
△총무 : 이상봉

지난 10월 9일 열린 개교 104주년 기념 총동창가족체육대회에서 마라톤대회 YB 1위, 배구대회 YB 3위에 올라 종합순위 3위를 차지하였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린바, 다음 체육대회에서는 더 많은 동기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 인물 동정



운대 우수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적 통일을 기원하고 남북의 문화적 이질 감 해소와 남북 화합을 염원하는 '2010 안동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1983년 전국 웅변대회에서 우승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로 참가했다.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 산업시찰을 하며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10월 15일 오후 7시 봉덕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대명3동·봉덕2동 주민자치위원 및 동직원 합동간담회를 주관했다.



호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참가하여 그동안 3회의 결친 아킬레스건

수술의 후유증을 딛고 4시간 4분 29초 기록으로 약 4만여 명의 참가자 중 15, 897등으로 완주했다.

고 회장은 2004년 제108회 보스턴대회 참가 및 2005년 전주 마라톤대회에서 대망의 서브3를 달성했으며 풀코스 30여회의 완주 경력의 소유자이다.

또한 2001년 대구 달리네 부부마라톤 클럽을 창설하여 운영 중이며, 많은 계성 동문이 계성마라톤회에 가입하여 건강과 친목을 위해 마라톤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1년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도 당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일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든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서민들, 도민들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단합해서 힘을 모으라는 국민들의 주문이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더 낮춰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당은 30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에서 6·2지방선거 당선자 약속 실천 다짐 대회 및 워크숍과 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금제도의 활용과 지원'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석한 가운데 '한미친선협회'를 주재했으며, 8월 16일 드림피아홀에서 '2010년 을지연습 비상소집'으로 모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훈련 기간에는 영남이공대에서 테러대비 종합대응훈련이 병행 실시되는 만큼 알차고 현실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임문섭(60회) 서울우유 거창공장 공장장의 임무를 마치고, 7월 1일자로 서울본사 생산기술 상무로 승진하였다.

▷이원진(60회) 화랑교육원에서 경산창산중학교 교감으로 영전하였다.

▷이판수(60회)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장학관)으로 영전하였다.(9월1일)

▷박영준(60회) 자원 전문기업 비즈코리아(대표 박영준)는 최근 수단 농림부와 수단 블루나일 인근 1만2500ha에 영농 시범도시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영농학교, 영농기술센터, 병원, 주거시설을 포함한 도

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며 "조건은 30년 동안 무상 임차 후 수단 정부에 반환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함에 따라 비즈코리아는 수단 현지에서 기초 조사를 파견했고, 조사가 끝나는 10월경 착공할 계획이다.

비즈코리아는 "한국의 영농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수단 농림부 쪽에서 우리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도시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영농 전문가를 수단 현지에서 파견해 생산 기술지도 등을 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즈코리아는 수단 국영기업체인 사리아 그룹과 700억 원 규모의 영농 기계화 사업도 함께 체결했다. 회사 측은 "수단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의 영농 설비를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구매 대행과 함께 농기계 활용 및 수리법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순태(60회)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는 김 동문이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로 근무하다가 9월부터 니카라과 대사로 부임하였다.

▷김왕기(61회) 국민은행 지주회사 PR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정순구(61회)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장(관리1급)으로 승진하였다.

▷박화석(61회) (주)유카 부사장(서울양재동 소재)으로 승진하였다.



이사로 임명했다. 송 이사는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장, 창업지원과장, 창업벤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9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 1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원식(62회) 지난 8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장에서 관리본부장(상임이사)으로 승진하였다.



▷이의춘(62회)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이끄는 제5회 ARK 예술장학회 후원인의 밤 공연이 7월 18일 저녁 수성아트피아에서 펼쳐졌다. 이 공연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악 지방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교수가 중심이 돼 만들어진 ARK 예술장학회 출신 유럽과 성악가들이 출연하였다.

독일 뮌스터 극장 주역가수로 활동중인 바리톤 석상근, 프랑크푸르트 극장 주역가수 소프라노 조선희, 세계적 권위의 도밍고 콩쿠르 입상 후 유럽 전역을 활동 무대로 실력을 쌓고 있는 베이스 임재준, 독일 칼스루에 극장 오디션에 합격해 12월 국제무대 공식 데뷔를 앞두고 있는 바리톤 제상철 등이 주인공들이다.

또 이 공연에는 '까모 중창단'과 '피스(Pace) 남성합창단'이 함께 출연,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더욱 빛냈다. 특히 한국 가곡은 천안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추모하기 위해 수선화, 비목, 못잊어, 떠나가는 배 등을 불렀다.

▷강일석(63회) 화원성명교회 장로에 임직되었다.(10/9)

▷석기환(63회) 대구고검 사건과장에 부임하였다.(7/26)

▷정의정(63회)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대구지검 형사4부 검사직무대리에 부임하였다.(7/26)

▷정일화(63회) 정 변호사는 대구경찰청 수사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발령받았다.(8/23)

▷구종모(63회) 영천중학교 교감에서 울진 죽변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9/1)

▷김현준(63회) (사)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원장은 9월 6일(월) ~ 9월 10일(금) 대전에서 개최된 제3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댄스 스포츠 분야에 출전하여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 댄스 스포츠 시각장애인 부문 혼성 스탠더드 Class B '비엔니스 왈츠'와 혼성 스탠더드 Class B '탱고' 두 종목에 출전(파트너:전혜리)하여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2008년 제28회 대회에서는 '차차'와 '파소도 블레'에 출전하여 은메달 2개를 획득하였으며, 2007년 제27회 대회에서는 '룸바'와 '삼바'에 출전하여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바 있다.



관한 법률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9월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시행된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심사해보면 상당수가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서명을 위조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이들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섭(64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선출되었다.(9/15)



가졌다.

▷김병수(65회) 두산 홍보실장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직위 변경되었다.



인동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10/1)

## ◆ 축하드립니다.

▷김희웅(49회) 장녀 결혼(10/9)

▷박경순(49회) 자녀 결혼(7/10)

▷신준식(49회) 장녀 결혼(5/30)

▷이태원(49회) 장남 결혼(7/3)

▷현무능(49회) 자녀 결혼(5/29)

▷박성대(49회)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은퇴하고 범어동 애플타워 12층 수외과의원을 개원하였다.

▷이수남(50회) 자녀 결혼(10/23)

▷은중철(52회) 자녀 결혼(10/2)

▷김신웅(52회) 자녀 결혼(10/9)

▷구은희(52회) 자녀 결혼(10/23)

▷조해룡(53회) 장녀 결혼(5/30)

▷문병환(53회) 차남 결혼(7/4)

▷도기현(53회) 장녀 결혼(7/4)



# 퇴직교사 후학 양성 밑거름 10주년...계성중 '3·1장학금'

한 퇴직교사의 아름다운 기탁으로 설립된 계성중학교(교장 손용식) '3·1장학금'이 1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학생 90명에게 총 5천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후학 양성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계성중학교는 9월 16일 본관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년마다 3명씩 모두 9명에게 '3·1장학금'을 전달했다.

'3·1장학금'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57년부터 계성중학교 기술과 교사로 재직하다 1988년 정년 퇴임한 김환태 선생이 후학을 위해 선친인 고 김재범 애국지사의 유족 보상연금과 자

신의 뜻을 보태 1999년 9월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하면서 설립됐다. 장학금 명칭은 김환태 선생의 선친인 김재범 지사의 유지를 이을 수 있도록 '3·1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지어졌다.

계성중학교 제9회 졸업생인 애국지사 고 김재범 지사는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3·1운동 당시 서문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등을 배포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그 후 유증으로 31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3·1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김기표(53회) 차남 결혼(7/3)  
▷이석건(53회) 자녀 결혼(6/27)  
▷조광제(53회) 차녀 결혼(5/16)  
▷이광준(54회) 자녀 결혼(9/11)  
▷박상용(54회) 장남 결혼(11/6)  
▷박기창(54회) 차녀 결혼(11/7)  
▷손익호(54회) 자녀 결혼(10/24)  
▷이호수(54회) 자녀 결혼(10/16)  
▷도영호(54회) 장남 결혼(10/3)  
▷홍기현(54회) 장남 결혼(10/2)  
▷정태우(54회) 장남 결혼(12/18)  
▷손병주(54회) 차녀 결혼(9/4)  
▷김복수(54회) 자녀 결혼(9/4)  
▷남영철(54회) 차녀 결혼(6/5)  
▷최무원(54회) 장남 결혼(6/12)  
▷박병훈(54회) 자녀 결혼(5/15)  
▷박윤규(54회) 차남 결혼(5/22)  
▷조승제(54회) 장녀 결혼(5/16)  
▷배동왕(54회) 차남 결혼(4/24)  
▷현남순(54회) 차남 결혼(11/21)  
▷김진도(55회) 자녀 결혼(10/17)  
▷김진호(56회) 장남 결혼(6/26)  
▷서현열(56회) 장남 결혼(4/10)  
▷송대균(56회) 장남 결혼(5/2)  
▷김종수(56회) 삼남 결혼(4/17)  
▷나채문(56회) 자녀 결혼(11/21)  
▷김병웅(56회) 장녀 결혼(4/10)  
▷임상규(56회) 장녀 결혼(7/11)  
▷손덕곤(56회) 장녀 결혼(9/11)  
▷김교욱(56회) 차녀 결혼(11/24)  
▷우병국(56회) 자녀 결혼(11/20)  
▷시희준(56회) 차녀 결혼(10/9)  
▷박광우(57회) 자녀 결혼(10/9)  
▷장영진(57회) 장녀 결혼(9/4)  
▷김재현(59회) 차남 결혼(5/22)  
▷박현규(59회) 자녀 결혼(10/23)  
▷박윤규(59회) 장남 순철 군 사법시험 합격

▷신완식(59회) 딸 미진(계성90회)양 사법시험 합격

▷박영태(60회) 장녀 결혼(10/2)  
▷조재태(60회) 장남 결혼(10/31)  
▷금문수(61회) 본인 결혼(7/10)  
▷이상배(61회) 장녀 결혼(10/10)  
▷오규대(61회) 장녀 결혼(10/16)  
▷이상호(61회) 장녀 결혼(10/23)  
▷최성룡(61회) 장녀 결혼(10/23)  
▷안순갑(61회) 장녀 결혼(11/13)  
▷권가선(61회) 숯불생고기전문점 "우리" 개업, 부산 수영구청과 수영세무소 사이길 패밀리마트 맞은편 건물 1,2층 (약 300평) • 전화 : (051)628-9292  
▷천강현(65회) 기아퍼리대리점을 확장 이전 개업하였다.  
▷김명구(65회) 주식회사 나래 맥그릴이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였다.

▷문성희(81회) 저는 2004년 세무사시험에 합격 후 6년여간의 세무법인에서의 근무를 끝으로 2010년 7월 5일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재직하는 동안 체득한 다양한 경험으로 미약하나마 동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업세무사로서 세무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상호 : 세무사문성희사무소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6-9번지 3층  
• 전화 : 053-632-9100  
• 팩스 : 053-632-9102  
• 이메일 : eapsan@hanmail.net  
• 업무 : 기장대리/신고대행/양도세/상속 · 증여세/조세불복/이의신청/세무상담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여진(27회) 별세(5/26)  
▷이춘길(31회) 별세(7/12)  
▷이준(44회) 부인상(6/10)  
▷김용현(44회) 별세(10/2)  
▷한상근(45회) 별세(6/6)  
▷윤위환(45회) 모친상(7/26)  
▷이무철(49회) 별세(6/15)  
▷조정규(49회) 별세(6/12)  
▷권중규(49회) 별세(10/19)  
▷전재열(53회) 모친상(10/2)  
▷김원기(53회) 모친상(6/29)  
▷변상선(53회) 모친상(4/23)  
▷임완순(54회) 모친상(8/5)  
▷이창범(54회) 부친상(6/17)  
▷박기창(54회) 모친상(4/25)  
▷권준열(54회) 모친상(4/3)  
▷전병철(56회) 별세(10/13)  
▷김병웅(56회) 부친상(9/25)  
▷장상대(61회) 부친상(8/22)  
▷이재원(61회) 모친상(7/27)  
▷임종렬(61회) 빙부상(6/10)  
▷서정기(61회) 별세(6/3)  
▷강호영(61회) 부친상(5/4)  
▷김영주(63회) 부친상(10/8)  
▷송성구(63회) 부친상(10/1)  
▷송주필(63회) 부친상(5/11)  
▷권태호(63회) 부친상(5/18)  
▷이명규(63회) 부친상(5/24)  
▷김창수(63회) 부친상(6/1)  
▷박기석(63회) 부친상(6/9)  
▷홍준철(63회) 모친상(6/28)  
▷김성환(63회) 모친상(7/9)  
▷박정화(63회) 장인상(9/13)  
▷김광주(63회) 모친상(9/14)  
▷이윤하(63회) 장인상(9/17)  
▷남영로(63회) 부친상(9/24)  
▷도명섭(63회) 본인상(10/15)  
▷박세진(63회) 모친상(10/26)  
▷김기억(63회) 부친상(11/1)  
▷박병렬(64회) 빙모상(8/31)

▷김희섭(64회) 모친상(6/19)  
▷박영원(65회) 모친상(5/6)  
▷김효성(65회) 부친상(5/24)  
▷한동로(65회) 빙부상(6/5)  
▷사창동(65회) 모친상(6/7)  
▷오수희(65회) 모친상(6/23)  
▷송국선(65회) 부친상(6/24)  
▷박동보(65회) 부친상(7/20)  
▷최종욱(65회) 빙부상(8/17)  
▷차장현(65회) 부친상(9/14)  
▷박태달(65회) 빙부상(9/21)  
▷윤상일(65회) 부친상(9/23)  
▷정주석(65회) 부친상(9/28)  
▷김진식(65회) 본인상(10/4)  
▷홍동석(65회) 빙모상(10/7)  
▷신원섭(65회) 부친상(10/19)  
▷김상욱(65회) 빙부상  
▷안경석(65회) 빙모상(10/21)  
▷홍석원(65회) 모친상(10/21)  
▷손종주(66회) 부친상(5/29)  
▷김성주(69회) 모친상(7/28)  
▷이재덕(69회) 부친상(7/13)  
▷최원(69회) 부친상(7/8)  
▷이영근(70회) 모친상(10/5)  
▷심배석(70회) 모친상(9/28)  
▷구혜서(70회) 모친상(9/22)  
▷장덕재(70회) 모친상(9/9)  
▷남현준(70회) 장모상(8/21)  
▷백우용(70회) 장인상(8/12)  
▷서준호(70회) 부친상(8/2)  
▷신동욱(70회) 부친상(7/20)  
▷배종호(70회) 부친상(7/8)  
▷박장식(70회) 모친상(7/2)  
▷김명수(70회) 빙모상(7/3)



## 나라감정평가법인

### 대구경북지역본부

감정평가사  
양 보 식 (57회, 동기회 회장)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198-34  
TEL : (053)471-0900 FAX : (053)471-8600  
H·P : 010-3892-5456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

##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며칠 전 삼년 만에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들 둘인데, 큰아이는 군 복무중이고 작은 아이는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큰아이가 두 번째 파병되었다가 귀국한 후 짧은 휴가를 받아 집에 왔습니다. 귀국할 때 서울에 있는 동생에게 함께 모아지고 했던가 봅니다.

특별히 큰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을 바로 시작하여, 장시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라서 분위기가 더욱 따뜻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제 집사람도 가게에 매여 있어서 온가족이 모이면 짧은 여행이라도 하고 싶었던 바람은 희망사항으로 남겨두고 각자 속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십 년 전, 또 팔 년 전 집을 떠나던 때에는 철없는 어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모이니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빈손으로 이민 와서 지난 36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대책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계획과는 달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현재와 장래에 이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도 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부동산 폭락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미주 교민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다 같이 인내하며 지혜롭게 극복하자고 진주 이야기들을 두 아이에게 해주었습니다.

값비싼 보석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진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조개가 입을 열었을 때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와 살에 박히면, 이것이 몸에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보내고 싶어도 나가지 않는 이물질은 움적일 때마다 더욱 더 몸 속으로 파고 든다고 합니다. 조개는 이물질을 내보내려고 진땀나는 노력을 합니다.

조개는 이 모래가 만든 상처 때문에 피를 흘립니다. 조개는 이 모래가 주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조개는 이 아픔을 참아가며 살아남기 위하여 분비물을 만들어 이 모래알을 감

싸 안는데 이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의 영롱한 빛깔은 조개의 땀과 피와 눈물의 혼합색일 것입니다. 진주를 아무리 보고 또 들여다 보아도 조개가 겪었을 아픔의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진주의 크기는 혼자서 인고해 온 세월과 정비례하겠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아도 혼자서 외로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두 아이를 오해어 공항으로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조개가 두 개 있다. 그 중 한 개는 큰 진주가 들어 있고, 다른 한 개는 진주가 없고 조갯살뿐이다. 너희들은 어느 조개를 택할래?” 둘 다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택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평생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산 조개의 껍질 속에는 몇 톨의 가치뿐인 조갯살만 들어 있지만, 한평생 살아가면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이겨내면 값진 진주가 생기는 거라고, 인생의 선배이자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깨달은 것을 일러 주었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시카고 지부 총무 이효섭(61회)



## 현병호 · 권택만 세무회계사무소

현 병 호 (64회)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영세납세지원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가 12-9번지

TEL. (053)356-9900 FAX. (053)357-6132 H.P. 010-8640-8210



## 신간 소개

## 의사 아들과 『유방암의 발생과 예방』 함께 쓴 송방호(52회) 경북대학교수

"암은 자연에 대한 불복종의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 6.4%의 증가세를 보이는 여성 유방암도 임신과 수유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인위적으로 거스르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죠."

경북대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송방호(생물학 전공) 교수가 내과 의사인 아들 영도 씨와 함께 공저 '유방암의 발생과 예방-피토에스트로겐의 항암 효능'이란 책을 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세포 증식을 촉진한다면 이를 막는 '항(抗)에스트로겐'으로서의 피토(식물성)에스트로겐은 암 발생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의 탐색 과정을 서술한 이 책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게끔 학술적 전문내용과 유방암 예방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돕는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5. 6년 전인가요. 석류가 유방암은 물론 폐경 후 여성미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다면 그 소비가 급증한 적이 있죠. 그래서 3년간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랐죠."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류엔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논문에서도 확인됐다. 대신 석류엔 유사 에스트로겐 화합물인 고도불포화지방산(알파엘리오스테아릭에시드) 등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 물질은 송 교수가 처음으로 규명한 물질로 올 1월 영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내분비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선 보통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 에스트로겐 화합물을 섭취하면 여성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송 교수는 생물학자로서 항암물질 탐색이 필생의 연구과제였던 까닭에 내친 김에 유방암 관련 책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유방암 치료와 발생과정 등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했다. 마침 둘째아들인 영도 씨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병원에서 내과전문의 과정을 연수 중에 있어 부자(父子)는 쉽게 의기투합했다.

"공동저자로 의사를 물색하던 중 아들이 유방암 환자도 많이 만나봤고 또 첨단 연구자료와 참고논문 및 새로운 이론들을 즉각 확인할 수 있어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송 교수와 영도 씨는 책을 쓰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이메일을 주고 받고 서로의 견해를 나누었다. 유방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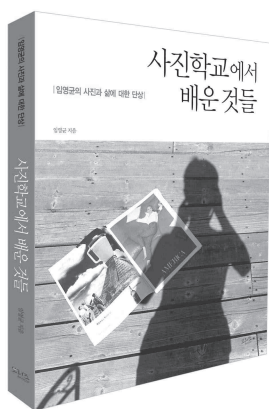
관한 한 부자는 동료이자 연구 파트너였던 셈이다. 어려운 의학용어와 풀이는 영도 씨가 맡고 생리적·생물학적 글은 아버지 손 교수가 맡았다. 게다가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책에 삽화를 첨가할 때는 역시 미국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막내아들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세 부자의 합작품이 지난달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스러움을 만들지만 역으로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세포가 이에 반응, 발암이 되고 암화된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 유방암이 되는 이른바 '에스트로겐 패러독스'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발암성을 억제하는 항에스트로겐 물질인 피토에스트로겐의 꾸준한 섭취가 여성의 최대 적인 유방암을 예방·억제하는 지름길이라는 게 이 책의 궁극적 핵심 내용이다.

피토에스트로겐은 콩, 알파파, 클로버 같은 콩과식물과 블루베리 같은 유색과일과 채소에 많다. 책은 이러한 내용을 장마다 요약과 잘 정리된 박스글을 첨가해 시각적인 지루함이 없도록 배려해 놓았다.



## 임영균(61회) 동문 『사진학교에서 배운 것들』



세계적 명성을 지닌 임영균(중앙대 사진과 교수) 동문의 남극 사진전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 전시장 태평양관 A - 37호 화랑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화랑협회, COEX 주최) 임 동문은 지난 1월에도 서울 인사동에서 저서 <사진학교에서 배운 것들>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 동문의 저서에서 (지면 관계상 극히 일부만) 발췌한 내용들이다. 사진에 관심이 많은 동문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임 동문의 저서를 적극 일독하시기를 삼가 권합니다.

### △ 나에게 사진이란 무엇인가.

사진 작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을 위한 사진인가, 사진을 위한 삶인가. 사진이란 흘러가는 영원 속의 한 '찰나'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영원 속의 '찰나'도 결국 인연karma이란 필연이 있었겠지. 그러므로 사진은 결국 나에게 있어 '예정된 일기'를 쓰는 것이다.

### △ 사진다운 사진은 어떤 것인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아지면 훌륭한 작품도 그만큼 많아질 것인가. 나는 이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사진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사진을 통해 '진정한 나'를 표현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림이든, 조각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다른 예술이 흉내 낼 수 없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사진만이 해낼 수 있는 표현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도 자연스레 나타내는 것이리라. 즉 현재를 기록하는 하나의 표현수단, 그것이 진짜 사진이다.

### △ 훌륭한 사진이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내가 가장 고민하고 느꼈던 삶이 그대로 베어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진으로 사진가의 성격과 스타일을 파악한다. 그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진가의 개인적 감성과 능력은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의지란 '사진가의 욕구'의 다른 말로 카메라와 렌즈를 통해 '의도된 사진'으로 다시 태어난다. 만일 누군가에게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좋은 사진'이란 말을 듣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것, 현재의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렌즈에 담아라.

### △ 메멘토 모리.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종종 백인 노부부의 사진촬영을 목격하게 된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들고 서로를 찍어주는 그

들의 모습은 상대에 대한 사랑을 확인이라도 하듯 경건하고 진지하다. 특별한 배경도 생각하지 않고 빛의 방향이나 노출에 얽매이지 않은 촬영은 '메멘토 모리'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인간의 유한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들은 현재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

### △ 관찰력이 능력이다.

사진작업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이론가들은 '사진은 실재를 묘사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다. 얼핏 보면 실재와 똑같아 보이는 사진도 좀더 유심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가의 관찰력에 따라 피사체가 드러내지 않은 것을 실제로보다 정확히 묘사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카메라를 들기 전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중략) 사진가는 누구보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작은 변화를 감지해 낼 만큼 섬세하며 올바른 통찰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많이 경험하고 많은 책을 읽어라. 그리고 많은 곳을 거닐며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 생각을 당신의 가슴에 새겨 넣어라. 어느새 당신의 뛰어난 관찰력이 렌즈에 담고자하는 피사체의 존재감을 뜨겁게 부각시켜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진가의 능력이고 사명이다.





www.dbi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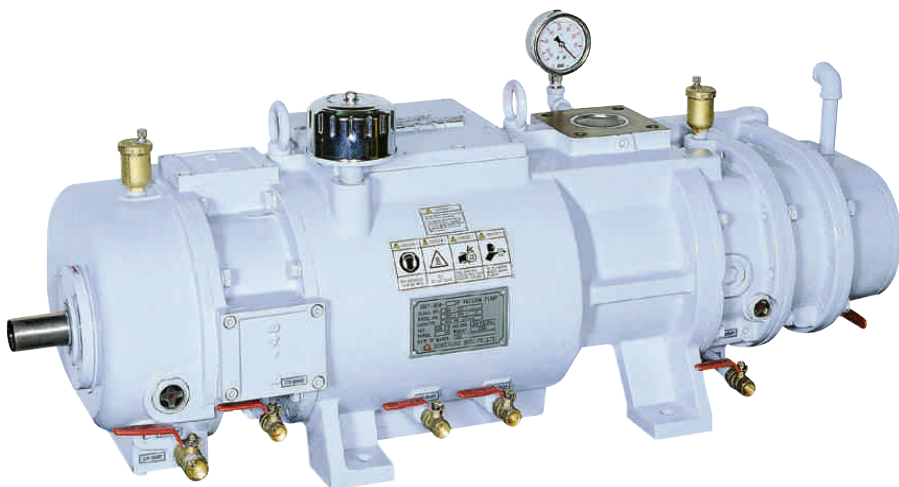


- Cold Rolled Process Line
- Shear & Slitting Line
- Continuous Slab Caster
- Hot Rolling Mill
- Cold Rolling Mill
- Industry - Plant
- Dry Vacuum Pump



## 제철 Engineering의 New Challenger-동방

동방은 제철 Engineering의  
대표주자를 지향하며  
기술한국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 / 회장 이 동 욱(56회) 대표이사 / 사장 이 승 화 (65회 · 총동창회 부회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95-12 번지 TEL:(053)589-5702 FAX:(053)589-5777

 **DONGBANG**  
PLANTECH CO., LTD.